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5 3 | 4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0-10 여성평화회의집 2층 (우) 120-012

☎ | 0505-362-8568 FAX | 0505-362-8569

e-mail | kdta@chollian.net

홈페이지 | www.kdta.or.kr

한국보육교사회 어린이선언문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떨든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인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창간 103호 2005년 03/04월호

창간호 1992년 5월 25일 |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

펴낸이 이윤경 | 목론이 이강선주, 김희정

펴낸날 2005년 3월 22일

2	여는 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백말신
4	보육정책	여성부 첫 [보육사업지침] - 무엇이 달라졌나?	이윤경
	보육활동		
9	아동교육	보육교사 및 부모협력 양성평등 프로그램 개발과...	유정은
26	인권보육	아동권 신장을 위한 옹호조직	서정은
31	평등 7세반 보육기	이야기 관을 벌이고 싶다!	평등어린이집
36	좋은 그림책소개	계절의 변화를 느껴볼 수 있는 그림책들	이지영
39	그림책을 읽어주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한송이
41	보육활동제안	사회지능 프로그램	조인숙
57	옛 노래와 놀이	<아이들 옛 노래와 놀이>로 아이들에게 삶의 환희를!	고정미
64	함께 생각해 봅시다	문제행동? 무엇이 문제일까?	윤선영
69	아이들과의 하루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새터엄마, 아빠랑 아이들이 꾸미는 아이들 세상 홈페이지
73	육아일기	좌충우돌 늦깎이 초보엄마의 육아일기	김수연
76	만나고 싶었습니다	혜영이와 용철이를 기리는 유진 어린이집	류지민
78	중앙활동	광주광역시보육조례제정을 위하여	박화영
79	사무실 이전	서대문 시대를 시작하며...	편집부
82	세상읽기	나의 딸아! 진짜 주인공 되어 세상 속으로 날아가렴!	박화영
84	특별기고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 세상의 보육노동자 - 창원 J 어린이집 시설비리 사건...	김지희
	기타소식모음		
86	알림란		
86	보육계 풍향		
87	소식과 소식		
88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0	편집후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박 말 신 · 한국보육교사회 운영위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시기 시기가 중요하지 않은 시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태아기,

이 세상에 빛을 보며 태어나 양육되어지는 영유아기

사회적 규범을 배우며 가치관을 세우는 청소년기

많은 책임을 안고 살아가며 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성년기

그리고 노년기...

우리 보육교사는 사람이 태어나 많은 정보를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영유아시기
의 첫 번째로 사회적 관계를 가져가는 시기에 만나는 사람이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만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 보육교사는.

한국에서의 보육교사는 너무도 많은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 “탁아관계 법을 만들어라” “보육정책이 이렇게 되면 안된다. 저렇게 고쳐야 한다” “돌봄의 보육 철학은 어떠하다” 등등 보육 전반에 대한 모든 문제(보육 정책, 보육 내용,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를 보육교사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듯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다.

즉 보육 운동의 주체로 보육교사가 중심에 서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보육운동을 아동을 맡기는 어머니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사람들이 함께 “보육소를 우체통만큼 만들라” 하며 외쳤던 사례를 보면 한국에서의 보육교사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듯 보육교사들의 활동이 광주지역에서는

보육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이 10년의 기간이 되어간다.

여성부 첫 [보육사업지침] 무엇이 달라졌다?

보육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지역에 따른 보육육구의 차이나 중앙 정부가 전국 규모로 하기 힘든 사업의 경우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통해 실현 하기위해 보육조례제정 사업을 진행했다

광주지역 보육교사는 광주시보육조례제정을 위해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막 열리는 시기에 광주지역 상황에 맞는 보육관련조례를 당시 주민자치연구소와 준비하며 공청회도 가졌는데, 광주시에서는 기관위임사항이라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후 타 지역 (과천시, 인천시, 울산시 등)에서는 조례가 착착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광주도 가능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2003년 4월부터 여성단체연합과 보육조례제정 사업을 시작해 2004년 1월에 광주시 의회교육사회위원회에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을 상정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시행령이 2004년 12월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니, 그 이후에 가서 만들자고 계류되고 말았다.

그 이후 작년 2005년도 다시 한번 광주보육조례 제정 할 것을 결의하며 광주지역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협력과 참여를 도모했다.

보육조례를 통해 광주광역시의 중장기적인 보육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를 만들고 보육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지역 민주 시민 단체 20여개 단체를 아우르며 광주시보육조례제정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2005년 3월 9일자로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의에서 통과가 되었다 이는 광주지역 보육교사들의 10년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자부한다. 보육조례 내용에 있어서도 광주시 보육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모임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육정책위와 보육정보센터의 경우는 경과조치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보육조례의 틀에서 그 실행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보육문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일반적 보육서비스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고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보육의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양성 평등한 육아 문화와 비용 지원 제도, 시스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천이 나타나야 할 때이다.

이제는 인생의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말할 수 있겠다. 그것은 세상에 태어나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가는 시기, 바로 영유아 시기라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기.
건강한 내 몸을 잘 관리하기.
교통신호를 잘 지키기.

그중에

영유아 시기의 중요성 인식과 영유아보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그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여성부 첫 [보육사업지침] - 무엇이 달라졌나?

이 윤 경 · 전국보육노동조합 사무처장

올해는 실질적인 보육사업의 방향과 정책을 여성부가 마련하여 시행하는 첫 해이다. 작년에 업무를 이관받기는 하였지만 복지부가 만든 지침과, 개정 이전의 법에 의해 그리고 미리 지정된 보육예산을 넘겨받아 관리,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고 여성부가 직접 예산과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보육현장에 내려 보내는 첫해이다.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가장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보육사업안내(지침)를 살펴보고 평가하면서 여성부의 보육정책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1. 보육의 기본개념

04년까지의 기본개념(복지부)	05년의 기본개념(여성부)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내용 내실화 *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증설 *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민간시설의 공보육적 성격 보강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다양한 보육수요(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에 적극 대처 * 시설 설치·운영기준 강화 * 보육인력 전문성 및 처우개선

04년까지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보육시설의 확충"이 언급되었으나 05년에는 공공성 강화가 등장하면서 특히 "민간시설의 공보육적 성격 보강"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하겠으나 단순히 시설을 늘이고 관리하는 문제를 넘어서 정부가 공개적으로 보

육을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있는 변화하고 생각된다.

또한 이전에는 단순히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만 이야기되던 보육인력의 문제를 '처우 개선'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실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한다. 물론 그 처우개선의 수준과 방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에 있어 [보육시설운영 일반원칙] 항목에서는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운영시간(07:30~19:30)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교사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지만 [종사자 복무]의 항목에서는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 평일 8시간(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현장에서 사실상 법에서 규정하는 휴게시간(업무로부터 떨어져 원하는 방식으로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09:00-18:00이라는 근무시간은 8시간이 아닌 9시간 근무로 봐야 한다.

이번 지침이 보육교사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예전에 비해 다소 개선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법적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 준수정도를 권고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고용과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정부지원비율이 전년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어떻게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특히 80%를 차지하는 민간교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이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은 요원할 뿐이다.

2. 몇가지 과제

1.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해당여부

∴ 법에서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300인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도 근무지나 사무실이 두개이상으로 분산되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2.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부족

∴ 보육업무의 특성상 종사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반드시 대체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없어 종사자들의 모성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또한 육아휴직, 산제휴직에 따른 대체교사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출산휴가는 제외하고 있다. 전체 종사자 중 기혼여성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시간연장형 보육 확충의 문제

∴ 시간연장형 보육을 할 경우 주간근무자의 연장근무형태가 아닌 신규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운영하도록 한 규정은 바람직하나 야간 근무자에 대한 지원을 보육 아동수와 상관없이 시설당 1인으로 제한하고 있어(신규지정의 경우) 응급상황의 발생이나 안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많아서 연장보육료의 수입만으로 또 다른 근무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은 지원받는 1명의 근무자만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단위로 연장보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의 지정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야간보육을 받는 아동의 안전과 충분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보육료 결정 항목의 문제

∴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부모가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을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행 보육료의 결정항목은 [종사자 인건비 + 교재교구비 + 급간식비 + 관리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사실상 보육료의 인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처음부터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일해 온 보육교사들의 실질적인 임금 현실화가 이루어진다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는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

히 아동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추고 시설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생각할 때 이 비용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보육의 질이 보육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명제를 생각한다면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보육료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원하여야 한다. 보육료는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아동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결국 해결점은 국공립시설의 비율을 높이고 여성부가 목표로 하는 민간시설의 공보육적 성격을 강화하여 민간시설까지 사실상 공공보육시설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마련과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다. 여성부는 스스로 선택한 보육의 목표를 실질화 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 및 부모협력 양성평등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효과에 관한 연구¹⁾

유 정 은 · 회원

유정은회원님은 전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우리 회에서 진행하는 양성평등교육에서 늘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 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환경학과에서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학위 취득 논문의 내용을 보육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실습니다.

1. 문제제기 및 목적

양성평등교육이나 양성 평등적 접근은, 유아들이 인간으로서 권리와 자유를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마음껏 발휘하는데 있어서 성이 장애물로 자리하고 있음을 성인 즉, 교사와 부모가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또한 성인과 유아가 갖고 있는 성차별적인 고정관념과 행동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육적인 실천과 구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사와 부모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양성 평등적 접근과 실천에서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의 시설장이나 교사, 부모가 함께 연계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에서 이어지도록 부모와 협력적인 관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 자체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우선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성인이 '양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교사의 양성평등 의식에 따라 용어가 달라지고, 상호작용

1) 본 내용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소개하기 보다는 논문의 틀을 벗어나 가정통신문을 통한 프로그램 안내의 형식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에 있는 시간을 제외한 또 다른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게 되는 유아에게 혼란 없이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협력과 대리양육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또한 교육과 지식전달을 통한 의식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게 된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그렇듯이 생활 속에서 혼란 없이 전달될 수 있을 때 효과가 있다. 그런 면에서 '양성평등 프로그램 실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체크리스트를 통한 양성평등 인식과 생활 속에서 반응하는 인식의 차이, 부모 협력 작업을 통한 부모의 과제, 유아교육기관의 계획된 행사 진행,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다른 상이한 전달로 인한 유아들의 혼란, 부모와 함께하는 조부모 및 친·인척 등의 양육방식 등이다. 예견되는 문제점을 알지만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은 전인교육으로서 '양성평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교사와 부모의 양성평등 인식과 양적인 협력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정보를 나누는 방법(교육, 참여수업, 참관수업, 오리엔테이션 등)중에서 가정통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부모협력작업의 가능성을 열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을 포함한다.

첫째, 자신의 성에 대한 성 정체성에 대해서 교사와 부모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 성 역할 고정관념 속에서 키워졌고 살아 온 성인들이 어떻게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유아들에게 성 고정관념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관찰하고 성찰하면서 점검해 보는 것이다.

셋째, 실제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시하면서 유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육자인 교사와 부모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2. 연구 모형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까지 진행된 프로그램과 이후 응용 가능한 프로그램, 그리고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이 포함되어 있다.

1 양성평등 육아문화 형성을 위한 보육교사 워크숍 1

진행된 프로그램	진행된 프로그램
1. 교사자신 성 정체성 찾기	1. 동료 교사와 경험나누기
2. 양성평등 이론적 이해	2. 부모 상담에 활용하기
3. 유아 놀이 관찰을 통한 성 역할 고정관념 찾기	; 양성평등 프로그램 제안
4. 실천 교육활동 계획하기	3. 교사끼리 서로 모니터링하기
	; 언어, 행동, 교육내용

1 후속 연구 제안 1

보육교사 대상 프로그램	↔	부모 대상 프로그램
1. 연간 교육 계획안에 양성평등 프로그램 제공 ; 교사 부모 협력작업		
2. 가정통신문 부모협력에 앞선 부모 의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유아의 연령을 낮춰 영아를 위한 양성평등 프로그램 개발		

1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부모협력 양성평등 프로그램 1

진행된 프로그램	진행된 프로그램
1. 부모자신 성 정체성 찾기	1. 내 가족 문화 점검하기
2. 내 아이 관찰하기	2. 부모와 함께하는 캠프
3. 내 아이를 통한 부모자신의 성역할 고정관념(가족문화) 찾기	; 양성평등 프로그램 제안
4. 제시된 과제 수행하기	3. 부부 함께 모니터링하기
	; 언어, 행동, 교육내용

3. 부모협력 양성평등 프로그램 구성²⁾

1) 부모협력 양성평등 프로그램 목표

양성평등 부모협력 프로그램은 부모 자신이 가정에서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내 아이의 미래와 관심사, 잘 하는 것과 미숙한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와 유아가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부모협력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 부모로부터 형성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는,

- 첫째, 부모가 가정에서 유아에게 해 줄 수 있는 양성평등 모델을 지원한다.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취학 전 유아 만 유아에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지원해 줌으로써 바람직한 성역할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
-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양육의 책임을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나 대리 양육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부모의 참여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유아를 양육하는 방법과 유아의 발달을 이해하는 것이 밑바탕이 되어 전반적인 양육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유아를 양육할 때 양성평등적 시각과 양성평등적 가족문화를 확산시킨다. 양성평등 프로그램은 의식의 변화와 문화의 확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작은 부분부터 바뀌어가면서 전반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흐름을 잡아야 한다. 따라서 지도방안의 내용과 유의점 등을 통해 시각이 변화하고 자연스런 가족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 넷째, 유아를 양육하는 주체인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연계방안을 제안한다. 두 주체 모두 유아에게는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다. 어느 한 주체만 변화한다고 해서 유아의 양성평등적 시각이 형성되기는 어렵다. 두 주체가 가장 자연스럽게 편하면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연계방법을 가정통신문으로 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보편적이고 시간을 절약하며 다른 시설과 부모에게도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한국여성개발원 양성평등의식 프로그램개발 자료(2000, 2001)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부모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주1회 6주 동안 제공되는 [가정통신문] 형태로 제공된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과제와 그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있다.

2) 부모협력 양성평등 프로그램 특징

가정 내에서 부모와 유아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일반적인 교육과는 다르게 부모님이 유아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에 따라서는 부모의 개인별 성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유아와 함께 만들고 그리고, 노래하는 활동도 포함되며 부모가 제공하는 가족 내 역할 모델을 유아가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활동의 다양성 제공

유아와 아버지가 하는 활동과 유아와 어머니가 하는 활동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요리하기, 만들기, 그리기, 노래 개사하기처럼 창의적 활동하기, 내 아이 인터뷰하기, 나 자신에 대한 성찰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유아와 함께 하는 특징이 있다.

② 활동의 일관성 제공

교사지원 프로그램의 주제와 병행하게 되어 유아에게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흐름과 가정에서의 연계활동이 일관성 있게 제시된다. 그리고 이야기나누기 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진행에 있어서의 일관성도 유지되고 있다.

③ 관찰을 통한 양육의 질적인 방법 제시

부모는 유아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짧아지는 만큼 유아에게 집중하고 관찰할 수 있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 유아의 흥미가 무엇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 등을 함께 공유하게 되어 시간의 양보다는 함께하는 활동의 질적인 면을 강화하고 있다.

④ 교육방법 제공

양성평등 프로그램의 각 주별 안내를 보면 자세한 활동의 필요성이나 의의, 활동 진행하면서 유의점, 활동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기 때문에 교사에게 별도로 문의하지 않고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3) 부모협력 양성평등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어린이집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가정통신문 외에 연구자가 제공하는 별도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수거하는 형식을 취했다. 가정통신문에는 유아와 활동할 때 유의점과 활동방법 등을 자세히 적고, 활동했던 내용은 다시 어린이집으로 보내 수거하도록 했다.

주 별로 가정통신문의 형식으로 제공된 부모협력 양성평등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틀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진행한 교사지원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고 난 뒤에 1. 해당 주에 주제 선정과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2.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아와 가정에서 활동할 때 유의점을 설명한다. 3. 유아와 함께하는 활동 제목과 내용, 지침을 안내한다. 그리고 부모님의 참여여부와 소감, 질문하고 싶은 내용 적는 곳을 기본 틀로 삼고 있다.



1주 부모협력 양성평등 프로그램 가정통신문 구성

1. 직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는 필요성

정년퇴직 할 때까지 한 사람이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직업을 전환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성 고정관념적인 생각을 버려야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전문지식을 익혀야 하며, 취미도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함께 해야 합니다.

첫 주의 주제가 [직업]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1. 보수를 떠나 행복한 직업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면서
2. 유아가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도록
3. 부모님의 편견 없는 지지와 지원이 청소년시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활동하실 때 유의하셔야 하는 점

- 1) 부모님의 고정관념을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자가 택해야 하는 직업과 남자가 택해야 하는 직업으로 나누어 설명하거나 알려주시지 마세요. "남자가.....", "여자가....."라는 언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 2) 유아가 택한 직업의 장점을 많이 설명해 주세요.

여자나 남자가 많이 선택한 직업 이라기보다는 그 일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좋은 점과 장점을 중심으로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3) 만일 성 고정관념(남 : 군인, 경찰 / 여 : 엄마, 미스코리아 등) 직업을 택했을 경우 그 직업에 다른 성(예)남자인 경우 여자군인이나 여경찰)을 가진 직업인도 있다는 것을 함께 설명해주시면서 여자 또는 남자와 함께 일하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 4)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마무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OO가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이나 가장 잘 할 수 있는 직업이라면 엄마, 아빠도 기쁘고 좋단다. 앞으로 그 직업을 더 많이 알아보도록 하자."라고 마무리 해주세요.

3. 이번 주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되도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참여해 주세요. 하실 수 있는 활동만 하셔도 됩니다.

1. 이야기 나누기 활동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니?"

→ 유의사항을 잘 읽으신 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세요.

2. 정보탐색 활동

유아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 정보 찾아보기를 함께 진행합니다.

→ 사진 자료, 기사 자료, 동화 자료, 직접 찾아가기 등.

할 수 있는 것을 진행합니다.

→ 함께 한 자료는 어린이집으로 보내주세요.

3. 그림 그리기 활동

유아가 되고 싶은 직업인으로 미래에 활동할 때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보도록 합니다.

→ 그림 설명을 듣고, 잘못 된 정보를 바로잡아 주세요.

→ 함께 한 자료는 어린이집으로 보내주세요.



1. 가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는 필요성

가정 내 성역할의 모델이 유아에게는 가장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빠는 안 그래.”, “우리 엄마 집에서 놀아요.”, “여자가 무슨 신문을 봐?”, “남자가 왜 설거지를 해?”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아이들입니다. 앞서 예를 든 대화 내용은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역할이 별도로 있다는 경험을 대다수의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아이를 기르면서 아들이라, 딸이라 못하게 하는 것이 적어진 현재에도 부모님의 역할분담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직업을 가진 아내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이나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집안일을 찾아 모델이 되어주세요.

이번 주의 주제가 [가정]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1. 가족을 위한 일은 역할이 따로 있지 않다는 점을 안내해 주시면서
2. 유아가 엄마, 아빠의 역할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도록
3. 부모님의 가정 내 역할분담이 동등하게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활동하실 때 유의하셔야 하는 점

1) 어머니 활동 : 신문이나 뉴스, 책을 가까이 하세요.

유아와 함께 엄마가 좋아했던 책을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찾아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신문 읽기는 TV프로, 운세, 날씨 이외에 정치/경제/사회면 등을 읽으면서 주변 어른이나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해 주세요. TV뉴스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한 것을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2) 온 가족 함께하는 활동 : 아빠 앞치마, 유아 앞치마 마련하기 활동

시장에 가서 함께 마련해도 되겠지만 있는 것을 사용할 땐 엄마 것과 아빠 것, 유아 것을 서로 지정해주는 활동을 함께 진행합니다. 가족 앞치마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유아가 자신의 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엄마 것을 제공해 주세요.

3) 아버지 활동 : 간식 만들어 주기 활동

간단한 요리(샌드위치 만들기, 떡볶기 만들기, 볶음밥 만들기, 김밥 만들기 등)를 아버지나 남자 어른이 준비하고 만들어 주세요. 되도록이면 엄마는 보조역할 정도만 하고 유아와 아빠(남자 어른)가 함께 요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바랍니다. 만일 아버지가 바쁘시면 남자 어른과 함께 해도 무방합니다.

3. 이번 주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되도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참여해 주세요. 하실 수 있는 활동만 하셔도 됩니다.

1. 어머니 활동 - 신문이나 뉴스, 책을 가까이 하세요

엄마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유아와 함께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찾아보는 것, 유아가 있을 때 신문을 읽는 것, 뉴스의 이슈를 아버지와 토론하는 것 등을 보여주세요.

2. 온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 - 아버지와 유아 앞치마 마련하기

엄마 앞치마와 아빠 앞치마, 유아 앞치마를 마련하세요.

→ 가능하시면 함께 시장보기를 하면서 마련하시고 아니면 있는 앞치마를

아빠 것, 엄마 것, 유아 것으로 지정하는 활동을 유아와 함께 합니다.

→ 엄마, 아빠, 내 앞치마 그리기 활동을 지도하신 후 어린이집으로 보내주세요.

3. 아버지 활동 - 간식 만들어 주기

유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리를 선보이세요.

→ 앞치마를 하시고, 재료를 준비하시고, 설거지까지 모두 맡아서 진행해 주세요.

→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버지가 만들어주는 요리 시간을 가져보세요.



1. 놀이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는 이유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잘 뛰어 노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협동놀이를 잘 하는 아이들은 사회성이 좋습니다. 좋아하는 놀이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놀이라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릴 때 놀았던 기억을 되살려 아이와 함께하는 전래놀이 주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번 주의 주제가 [놀이]로 진행되는 이유는

1. 아이들에게는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놀이, 배움이 가득한 놀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2. 유아가 엄마, 아빠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놀이경험을 할 수 있고
3. 여아와 남아가 자신의 성에 맞는 특정 놀이를 해야 한다는 편견을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활동하실 때 유의하셔야 하는 점

1) 부모님과 함께 여아 활동 : 딱지치기, 제기차기

자녀가 여아인 경우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딱지 접기, 딱지치기, 제기 만들기, 제기차기 등을 진행합니다. 물론 남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어머니나 여자 어른과 함께 활동해 주시면 좋습니다.

2) 부모님과 함께 남아 활동 :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위의 활동과 동일하게 자녀가 남아인 경우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공기 돌 찾기(작은 돌을 찾아 씻어서 사용하거나 문구점에서 사서 하셔도 됩니다.), 공기놀이하기, 고무줄놀이하기를 진행합니다. 물론 여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아버지나 남자 어른과 함께 활동해 주시면 좋습니다.

3) 놀이할때 주의점

놀이를 함께 하시면서 쑥스러워 하거나 '남자가.....' 또는 '여자가.....'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동심을 되살려 놀이에 흠뻑 빠져주세요.

3. 이번 주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되도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참여해 주세요.

아이와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모님과 함께 여아활동1 - 딱지치기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딱지를 접고 딱지치기를 합니다. 남아가 할 경우엔 특히 어머니나 여자어른이 함께 진행하도록 해주세요.

2. 부모님과 함께 여아활동2 - 제기차기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제기차기를 합니다. 제기차기의 여러 종류를 알려주세요. 남아가 할 경우엔 특히 어머니나 여자어른이 함께 진행하도록 해주세요.

3. 부모님과 함께 남아활동1 - 공기놀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공기 돌을 주워서 하거나 문구점 공기를 사서 공기놀이를 합니다. 공기놀이의 여러 종류를 알려주세요. 여아가 할 경우엔 특히 아버지나 남자어른이 함께 진행하도록 해주세요.

4. 부모님과 함께 남아활동2 - 고무줄놀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고무줄 놀이를 합니다. 여아가 할 경우엔 특히 아버지나 남자어른이 함께 진행하도록 해주세요.



4주 부모협력 양성평등 프로그램 가정통신문 구성

1. '다른 성에 대한 동등한 가치 인식'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는 필요성

직업, 가정, 놀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여성과 남성, 여아와 남자는 차이가 없다고 매년 설명을 해도 스스로 다른 성에 대해 동일한 가치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매스컴이나 부모님의 생활, 주변 어른의 대화나 생활태도에서 자연스럽게 교육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의 주제가 [다른 성에 대한 동등한 가치 인식]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1. 지금까지 진행된 활동을 통해서도 여전히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2. 부모님이 갖고 있는 내 아이에 대한 기대를 생각해 보는 기간이며
3. 부모나 유아 모두 다른 성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활동하실 때 유의하셔야 하는 점

1) 이야기 나누기

유아와 함께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찾도록 합니다. 유아가 생각지 못한다면 부모님께서 함께 잘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해 주시고 그 의견에 대한 유아의 생각을 듣도록 합니다. 그림 자료가 제시되어도 좋고, 신문자료 중에서 사진을 제시해 주시면서 신문의 주인공이 남성(혹은 여성)인 경우 다른 성을 가진 성인도 함께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여주세요.

2) 부모님께서 원하는 내 아이 생각하기

4페이지에 질문을 제시하고 의견을 쓰실 수 있도록 표를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부모님의 각자 의견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일 어머니만 혹은 아버지만 의견을 내셨으면 해당 칸에 적어주세요. 짧게 작성하셔도 되지만 다만, 내 아이를 잘 관찰하고, 지금까지 양육하면서 강조했던 점에 대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 이번 주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 부모님이 생각하는 활동

1. 이야기 나누기 -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것 찾아서 이야기하기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것] 찾고, 이야기 나누기를 합니다. 혹시 떠올리지 못한다면 직업(남녀의사, 남녀간호사, 남녀가수, 남녀과학자, 남녀스포츠맨 등)이나 가정(엄마와 아빠 모두 청소, 설거지, 빨래, 음식 만들기 등), 놀이 등을 제시해 주셔도 됩니다.

2. 부모님께서 원하는 내 아이 -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하는 점에 대해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이에게 거는 기대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신 후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다음의 질문에 따라 정리하시면 됩니다.

- 1) [내 아이가 여아 혹은 남아라서 이런 성인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점
- 2) [내 아이가 여아 혹은 남아라서 제발 이런 일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
- 3) 내 아이에게 주로 교육하거나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5주 부모협력 양성평등 프로그램 가정통신문 구성

1. '성 편견에 대한 비판능력' 내용으로 진행하는 필요성

가치관을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중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평등해.' 라고 늘 생각하지만 막상 내 눈앞에서 불평등한 모습이 보인다 해도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내거나 고치려고 하는 것은 힘들기 마련입니다.

이번 주의 주제가 [성 편견에 대한 비판능력]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1. 부모님께서 아이들이 갖게 되는 성 고정관념과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답해줄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2. 아이들은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점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지 경험하고 연습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2. 활동하실 때 유의하셔야 하는 점

*** 이야기 나누기- 내 아이 인터뷰하기 ***

다음 질문 중에서 내 아이에게 적절한 질문으로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또한 다음의 질문에 대한 아이의 답과 부모님의 설명을 보태거나 빼지 마시고 그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1) 만약에 동생이 생긴다면?

성별이 어떤 동생이 태어났으면 좋겠어? / 동생한테 어떤 형(누나), 언니(오빠)가 될 거야?

2) 만일 남자(여자)로 태어났으면? 다른 성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기분일까? /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 힘든 점(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3) 이 다음에 커서 아빠(엄마)가 되면?

어떤 일을 하실까? / 어떤 일을 힘들어하실까? / 엄마(아빠)가 아빠(엄마)를 도와주실 수 있는 일은? 등등의 질문이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아 답에 대한 부모님의 설명을 적어주세요.

3. 이번 주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이번 주에는 부모님께서 내 아이를 인터뷰하는 것입니다. 이 때 자녀의 답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을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혹시 편견을 가지는 언어나 의견이 있을 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는 시간으로 가져주세요.

1. 다음 세 주제의 질문 중에서 내 아이에게 적절한 질문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모두 다 하시면 좋겠지만 이야기를 나눌 내용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2. 또한 다음의 질문에 대한 아이의 답과 부모님의 설명을 보태거나 빼지 마시고 그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3. 부모님 소견은 유아 답에 대한 생각을 쓰셔도 되고, 부모님과 다른 생각이거나 편견 있는 답을 했을 경우에 설명을 해 주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내용 모두 포함합니다.

(1) [만약에 동생이 생긴다면?]에 대한 주제
성별이 어떤 동생이 태어났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생각했지?
동생한테 어떤 형(누나), 언니(오빠)가 되고 싶어? 어떤 일을 해 주고 싶은데?

(2) [만일 남자(여자)로 태어난다면?; 다른 성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에 대한 주제
어떤 기분일까? 힘든 점(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다른 성으로 태어났을 때)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왜 그 일이 하고 싶지?

(3) [이 다음에 커서 아빠(엄마)가 되면?; 동일한 성별로 질문합니다.]에 대한 주제
어떤 일을 하고 지낼까? 힘든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아빠)가 아빠(엄마)를 도와주실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니?



6주 부모협력 양성평등 프로그램 가정통신문 구성

1. '성 편견에 대한 대응능력' 내용으로 진행하는 이유

지난 주 실시한 비판능력보다 한 발 더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건 아니야, 잘못 되었어.'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문제 해결하며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이번 주의 주제가 [성 편견에 대한 대응능력]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1. 부모님께서 유아의 성 고정관념적 행동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활동의 실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2. 유아에게도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키워주는 활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2. 활동하실 때 유의하셔야 하는 점

1) 노래가사 바꾸기- 곰 세 마리

곰 세 마리 노래 가사를 유아와 함께 의논해서 바꿔 부를 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바꾸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빠 곰은 똥똥 해	(→	)
엄마 곰은 날씬 해	(→	)
아기 곰은 너무 귀여워	(→	)

2) 동화 이야기 꾸미기

유아가 알고 있는 동화 중에서 이야기를 더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야기나누기를 합니다. 동화는 신데렐라, 잠자는 숲 속의 공주,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콩쥐 팥쥐 등입니다.

방법 - 이야기를 다 들려주거나, 유아가 아는 동화라면 마지막 장면만 들려주신 후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인공들이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뒷이야기를 더 꾸민다면?' 등등의 질문을 합니다.

위 질문에 대한 유아의 답을 그대로 적어주시고, 부모님의 소감과 답변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작성해 주세요.

3. 이번 주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1. 곰 세 마리 노래 가사 바꾸기

아이들과 많이 함께 부르는 곰 세 마리 노래의 아빠, 엄마, 아기의 다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생각하고 가사를 바꾸어 함께 노래를 불러 보는 시간을 가져 주세요.

2. 동화 뒷이야기 꾸미기

유아가 알고 있는 동화 중에서 가장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재밌게 꾸미도록 지도해 주세요. 예를 들어 등으로 질문을 해 주세요.

해당 동화 - 신데렐라, 잠자는 숲 속의 공주,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콩쥐 팥쥐 등
이 중에 한 편

진행 방법 - 이야기를 다 들려주거나, 유아가 아는 동화라면 마지막 장면만 들려주신 후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인공들이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뒷이야기를 더 꾸민다면?' 등등의 질문을 합니다.

예)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왕자와 공주는 어떻게 지냈을까?"

4. 연구의 의의

성 고정관념의 뿌리를 찾는 연구가 거듭 되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성 역할 검사를 통한 양성성의 점수를 수량화해서 통계를 내는 것 보다는 유아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성인부터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전환과 자신의 성찰, 대안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보급된 취학 전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응용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다. 교사 성 정체성 찾기, 교사와 부모 스스로 성찰하기, 가정통신문을 통한 부모협력의 시도 등이 그것이다.

둘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주체이며 영향력이 지대한 성인(부모 및 교사) 대상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에 대한 연구가 될 수 있다. 특히 보육교사 대상의 양성평등 프로그램은 성 정체성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자신에 대한 자각과 유아 대상 양성평등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필요성과 동기유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부모협력 작업의 첫 시도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있지만 부모가 유아에게 직접 활동을 제안하고, 수행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부모협력 프로그램의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넷째, 대상별 양성평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량적인 통계보다 참여한 유아, 교사, 부모의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 질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권 신장을 위한 옹호조직

서 정 은 · 본 회 전문위원, 숙대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안녕하세요? 서정은입니다.

우리 회 소식지에 아동인권에 대한 원고를 단골로 쓰고 있는 사람이기에, 모두들 제 이름만 보고도 '아, 서정은 선생이 또 글을 쓰는군' 하며 식상해 할지 염려가 됩니다. 아동인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째서 제가 연거푸 글을 쓰게 되었는지 궁색한 변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동인권이라는 주제는 우리 회의 전신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18년전 쯤 빈민/중산지역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탁아소를 운영했을 당시에 가졌던 정신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엄마들에게 일할 권리, 아이들에게 보호, 교육받을 권리'라는 슬로건에서 드러나듯이 아동권의 확보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때 즈음, 정릉 산 꼭대기 판자집 틈에 끼여 있던 빈민탁아소에서 제 교사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햇병아리 교사에게 무슨 심오한 아동관이나 아동인권 의식이 있었을까요? 그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간 아이들을 생각하며 '탁아법 생취'를 부르짖을 때, '우체통 수 만큼 탁아소를, 버스정류장 수 만큼 탁아소를' 만들어라 외치며 거리행진을 했지요. 우리가 참여하여 일궈낸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 힘으로 다시 아동인권을 이야기하게 됐지요.

지난 몇 해 동안 우리 회는 '아동인권 교사연수', '아동인권 워크숍' 등을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인권 공부모임'을 진행 했구요.

보육시설 안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한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우리 회 안에서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 궤도를 같이 하며 본 소식지 지면을 통해 수차례 전달되었습니다.

아동인권은 우선은 교사 개개인의 아동관의 변화와 인권 의식의 고양에 매우 중요함

니다. 그와 더불어 보육시설 전체 운영에서 아동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 가져야 합니다. 최근의 제 생각을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인권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보육시설 현장의 목소리가 좀 더 드러나야 한다.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아동인권이 아니라, 보육시설 현장에서 실천하며 고민하는 교사들의 고뇌와 노력이 드러나야 한다.
2. 보육시설 아동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기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규모와 질적인 수준에서 천차만별인 여러 보육시설에서 최소한 실천할 수 있는 아동인권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아동의 목소리를 경청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아동들의 요구와 개선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육교사, 부모 대상의 아동인권 연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5. 아동 인권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결합이 필요하다. 교사를 비롯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보육시설내외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원은 아동의 인권을 증진하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하면서도, 이것이 점진적인, 다소 진부하게 느껴지는, 아니 중요한 핵심 알맹이가 빠져서 좀 멍충 멍충 심심한 개선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동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성인, 그러한 성인들이 주로 모여 있는 집단조차 여전히 성인의 온정주의적, 보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도 그다지 아이들이 인권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학교 선생님들의 하소연과 똑같은 고민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아동인권을 논하기에 지금까지의 접근방식이 자꾸만 한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보육사업의 질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아동인권이 가질 수 있는 영역은 아주 좁다는 느낌입니다.

아동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인식의 제한적인 틀에서 벗어나 아동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아동인권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가졌던 초기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법이 있었음에도 탁아법 제정을 요구했던 것은, 아동권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아동복지법이 미흡했기 때문이었지요.) 이렇듯 아동인권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새로운 각도에서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방안 중 하나는 아동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아동조직과 그러한 아동조직을 지원하는 성인조직, 즉 아동권리 옹호조직을 만드는 겁니다.³⁾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 이용자조직, 그 중에서 아동들이 모인 이용자조직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권 분야에서 그나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보다 연령이 한참 어린 보육시설 이용 아동들만의 조직이라니요? 우리 원의 아이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다니요?

UN 아동권리협약(1989)의 제 12조 1항에는 아동의 의사 표명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부딪치는 일상적인 사건은 물론 가족으로부터의 분리와 같이 중대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아동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아동이 발언할 기회를 갖고 그것을 위한 지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지요.

보육서비스 이용자는 당연히 매우 나이 어린 아동과 부모입니다. 이때 보육서비스 이용자로서 나이 어린 아동이 보육서비스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성인인 부모는 물론, 아동이 시설 이용에 따른 의사 표명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회적 힘을 소유하지 못한 약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보육서비스 과정에 아동이 참여하여 발언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보육서비스에 대해 아동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아동이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는 이러한 시설 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권력관계를 재편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자조직이 결성되어 활동해 왔습니다. 영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사회복지 서비스, 그 중에서 위탁보호 시설이나 대리 보호 시설에 머물렀던 아동들로 구성된 '전국아동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Young People in Care, NAYPIC)'가 결성되었습니다.

3) 김경호(2003). 영국의 아동복지 이용자조직의 참여에 관한 역사적 고찰.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그런데, 이 협회는 영국의 한 지방도시 사회복지부에 소속된 두 명의 사회복지사와 시설아동 15명이 모여 시설생활에 관련한 문제를 토론하고, 그 토론의 결과로 몇 가지 문제가 개선되는 과정을 거쳐 결성을 한 것입니다.

전국아동협회는 이용자 아동조직으로서 영국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는데, 시설입소아동과 입소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되어 25세가 넘으면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연구자 등 성인이 참여하지만 운영 위원회에서 그 비율이 1/3을 넘지 못하고 결정권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명실공히 아동을 위한, 아동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청소년의회가 결성되어 그 활동을 시작했고 각 지역의 인권단체들이 아동인권 옹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아동의 참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보육사업의 제도와 정책, 보육서비스의 내용은 국가와 시설 공급자, 운영자에 의해 이끌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부모는 물론 아동이 보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시설 공급자 측에는 결코려운 일에 가깝습니다. 아동은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기관인 공급자야말로 아동의 복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집단으로 지금까지 간주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참여하지 않는 한, 보육시설 안에서 아동권의 영역은 아주 제한적 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와의 관계와는 별개로, 일정한 권력을 가진 서비스 공급자는 이용자인 아동과 부모를 배제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들이 보육시설의 생활에 대해 더 많이 발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이 필요하며 또한 아동들의 조직을 돕는 전문 인력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회가 아동인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들의 목소리를 내도록 돕고, 국가와 서비스 공급자, 운영자가 이를 듣도록 하는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동들의 이야기 듣기대회'를 각 지역별로 열고, '아동들이 보육시설 생활에서 개선하길 바라는 10대 과제'를 아동들에게서 청취하고, 가장 심각하고 해결이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 정책 제언서를 작성하고, '보육시설에서 지켜야 할 아동권리 준수 지침' 발표하기 등등의 일 말입니다.

외국의 사례는,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데 실패하는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아이들의 참여는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은 교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아이들에게 어떤 인권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아이들의 참여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한번 아이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불편하거나 힘들어서 당장 바뀌었으면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말입니다.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말하도록 하는 것,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출발선입니다.



이야기 판을 벌이고 싶다!

평동어린이집

며칠 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졸업을 했다. 작년 이맘 때 뒤늦게 평동 식구가 된 나를 살뜰히 보살펴(?) 주었던 아이들이라 그런지 마음이 좀 남달랐다.

2월 어느 날, 우리네아이들 편집부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았다. 취학 전 아이들 보육에 대해 시리즈로 글을 실어 보려고 하는데 평동에서 그 시작을 끊어주면 어떨까 하는 내용의 청탁이었다. 인연이 깊은 지라 기꺼히 그러마 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고민과 후회를 했다. 나중에 쓰겠다고 할 걸,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 고민을 거듭하다 마침 그 시기가 7살 아이들이 졸업을 앞둔 시기라 '졸업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기로 했다.

시작은 평동에서 하지만 취학 전 보육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집부에서 청탁 들어가기 전에 자발적으로 글을 보내 주시라.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민간, 국공립, 공동육아, 발도르프어린이집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취학 전 아동의 보육 내용과 현장의 고민 등을 함께 나누다 보면 무언가 정리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무엇이 생기지 않을까? 편집부에서 원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 고민이라는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어린이집의 속을 드러내는 것 같은 부담감이 없지 않지만 현장에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내용을 함께 나눈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왜 학위복을 입나요?

요즘 대부분의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아이들을 졸업시킬 때 학위복을 입힌다. 언제부터인가 왜 아이들에게 학위복을 입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초동학생을 둔 아이들 집에 가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커다란 액자에 사각모를 쓰고 웃고 있는 아이들 사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우리 곁에 뿌리를 내린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주변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께 왜 이렇게 웃을 입히나요? 하고 물어보면 다들 잘

모른다고 하셨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나름대로 말이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우리사회의 고질병인 학벌중심, 학력중심의 사고가 어느 틈엔가 우리 아이들 생활에도 뿌리 내리게 된 것이라고.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 번듯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부모들의 공통적인 바람이 된 지 오래된 마당에 관행처럼 그렇게 해 온 것들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어찌면 불손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받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사소한 문화가 우리교육의 문제를 더욱 고착화 시키고 합리화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미국 중심의 서구유아교육의 영향을 우리 유아교육계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또, 초창기 번듯한 사립유치원 등에서 시작된 문화가 소규모 유치원을 비롯해, 학원, 보육시설 등에도 빠르게 전파된 것은 아닐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 보았다. 다음은 인터넷 지식검색 사이트와 신문에 실렸던 글이다.

졸업식과 각종 학위 수여식 때 입는 학위복은 주로 차분한 검은색 바탕에 간단한 디자인으로 수도사의 수도복을 떠올리게 하는데 실제로 중세 수도사들의 예복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학위복의 역사는 중세 대학의 출현과 그 시작을 같이 한다. 12세기경 성당 학교로부터 비롯된 중세 대학에서는 성직자들의 외출복으로 쓰이던 카파 클라우사(Cappa clause)를 교복으로 입었다. 이는 15세기 후반~16세기 동안 당시 시대를 반영하면서 조금씩 그 모양을 달리해 왔다. 이때 종교개혁이 100여년 간이나 지속되면서 대학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외부의 영향에 의해 개방되어 엄격했던 생활규범이 변화했다. 이후 대학교복에 대한 법령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 공식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복을 착용하지 않게 되었다.

유럽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학위복은 1893년 프린스턴 대학 이사인 존 제임스가 만든 규약에 따르고 있다. 당시 그는 군인 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계급과 지위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복장이 가치있는 것이라 생각하여 유럽 대학 학위복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그가 만든 학사복 규정은 몇 번의 수정을 거쳐 1960년 완성되어진 뒤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 규약은 가운과 후드 및 모자의 디자인에서부터 옷감, 색, 장식물의 유무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학위복이 들어오게 되었다. 1899년 최초의 현대식 고등교육기관 이자 의(醫)학교인 제중원이 설립되어 1908년 제1회 졸업식을 시행하였는데, 이 때 처음으로 학위복을 입었다. 당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었던 유학생들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형태는 흰 바지와 저고리에 흰 두루마기를 입어 청장차림을 한 뒤 그 위에 검은 가운을 입은 것이었다.

머리에는 검은색 술이 달린 검은 사각모를 썼다고 한다.

이후 1914년 이화학당 제1회 졸업식 때 이 학교 양장과 학생들이 손수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학위복으로 그 형태가 정립하게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공, 사립 대학이 전문대에서 승격되거나 신설되었으며, 이들 대학교의 졸업식에는 먼저 착용해온 대학들의 학위복을 모방하여 사용했다. 그리하여 차츰차츰 학위복을 착용하는 대학들이 늘어나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 네이버 지식검색사이트 중 -

어쨌든 지금부터는 올 2월 평동의 졸업식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따끈따끈한 실화이다. 졸업식을 준비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면 관계 상 졸업사진과 당일 졸업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졸업사진을 안 찍는 다고요?

작년 봄부터 선생님들과 졸업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올 해 졸업식부터는 조금 다르게 진행해 보자는 생각을 공유해 왔다. 1월 초, 가정통신문을 통해 올 해부터 졸업사진을 찍을 때 학위복을 입고 찍는 사진은 찍지 않겠다는 내용을 부모님들께 알렸다. 7세반 선생님이 저녁 때 아이들 데리러 오시는 부모님들에게 12월부터 개별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때는 별 말씀이 없었지만 막상 공식적으로 통신문이 나가자 몇 몇 분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셨다.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니냐, 부모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그래서 임시 7세 학부모 모임을 가졌다. 부모님들의 의견은 이랬다. 시간이 흘러 남는 건 사진밖에 없는데 사진을 안찍는다니요, 큰 애 사진은 있는데 작은 애만 사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학위복 입고 찍은 사진이 난 보기 좋던데요, 그 동안 사진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등등.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집 입장을 설명했다. 앞에 적었던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그리고 사진을 안찍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찍고 싶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부모님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눈 뒤 대안을 찾았다. 사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경우 옷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부모님들의 의견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편찬한 생활한복을 몇 벌 마련하여 사진 찍을 때 입고 찍기로 했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는 많이 서운해 하셨던

부모님들께서 모임을 마칠 때는 서로 양보하며 찾은 대안에 만족해 하셨다. 사랑을 하자면 이것이 우리 어린이집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닐는지... 호호호...

카페같은 분위기에서...

작년까지는 졸업식과 수료식을 같이 했다. 52명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행사를 하자니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올 해는 조금 형식을 바꾸어 기존의 수료식과 졸업식을 분리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특성 상 한 번 아이들이 들어오면 졸업할 때까지 수년을 계속 다니는 경우가 많으니 그 동안 1년 단위로 수료장을 주며 다음 반으로 올라가는 행사를 하지 않고 대신 어린이집을 졸업하지 못하고 여러 사정 상 그만두게 되는 아이들과 졸업하는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작은 규모의 졸업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차분한 분위기에서 아이를 함께 키워 온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이다. 대신 졸업과 수료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 중 친분관계 등으로 함께 축하해주고 싶은 아이들과 가정이 있을 수 있기에 졸업하는 아이들이 각 가정에 초대장을 만들어 보내기로 했다. 졸업 당일 행사는 주인공과 가족들, 초대에 응한 가족들에 맞추어 준비되었다.

행사 장소는 아이들이 생활했던 진달래 방에서 하기로 했는데 분위기는 그 동안 염색해 두었던 천과, 풍선, 양초 등을 이용해서 카페(?)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보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주최 측인 우리가 보기엔 아주 좋았다 (후문엔 졸업생 부모님들도 흡족해 하셨다는 이야기가 한동안 떠돌았다) 지난 총회에 서 교육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직접 만들어 전달한 이선주 사무국장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졸업장과 상장도 직접 만들었다. 삼단 병풍액자 양쪽엔 졸업장과 상장을, 가운데에는 아이 사진을 넣어 주었다. 상장에는 아이에게 딱! 어울릴만한 하나밖에 없는 상 이름을 달아 주었다. 이렇게 말이다. '마음이 넓어요 상' '궁금한 것은 못참아 상' '레오나르도다빈치를 닮았나? 상' 등등.

아이들과 평소엔 생일축하 할 때 불렀던 백창우씨의 '그대의 날'을 졸업식에 어울리게 개사하여 선생님들이 불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서 찍었던 사진(어렸을 때 사진과 최근 사진 등)과 졸업여행, 2월 초에 있었던 '해맞이 들살이' 때 비디오 촬영했던 것을 단편영화(?)로 만들어 함께 보았다. '평동에서 보내는 마지막 겨울' 이라

는 제목으로 말이다. 보면서 킁킁 웃기도 하고, 마음 잔 해하기도 하면서 헤어짐의 아쉬움을 나누었다. 마지막 순서로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졸업식의 마무리를 장식했는데 4년 이상 평동에 아이를 맡기신 분들이 많이 계셔 진한 아쉬움을 이야기하기도 하셨다.

'관'을 벌이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그 주체인 아이들, 교사, 가족이 즐거운 행사를 만들고 싶었다. 거창하게는 '관'을 벌리고 싶었다. '놀이관' '이야기관' 출판 '과' 같은 '관'.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 멀었지만 지향은 그렇다.

졸업식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나 졸업생 아이들이 진짜로 어린이집에 안 나오게 되자 새로운 7살 아이들이 어린이집의 제일 큰 언니, 오빠 자리를 꿰찼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 아이들 같더니 언제 컸는지 제법 언니, 오빠 티가 난다. 2005년 한 해는 1월1일 시작되었지만 어린이집의 시작은 지금 막 딱딱딱하게 시작되었다.

올 일 년 우리네아이들을 통해 작지만 속이 꽉 찬 '이야기관'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타고난 이야기꾼이 아니기에 소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자. '단상'이라고 할까? 작은 소리, 소소한 이야기들을 한 번 모아 보자. 엮어보자. 일 년 뒤 그 울림은 지금 이 시작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게 메아리치게 될 것이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다음 호 '우리네아이들'이 벌써 기다려진다.



평동어린이집 졸업식 기념촬영



계절의 변화를 느껴볼 수 있는 그림책들

이 지 영 ·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

까치와 소담이의 수수께끼놀이 / 김성은 글·김종도 그림 / 사계절

나무/엘라 마리 그림 / 시공주니어

바람이 차갑지만 겨울바람과는 달라 피부로 느껴지는 기운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시간이다. 아직은 앙상하지만 곧 나무에 푸른 물이 올라 파릇파릇한 새싹을 틔워 마음을 설레게 할 것이다. 나뭇가지에 따라 물오른 연두색 새싹들은 꽃잎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꽃보다 더 강렬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 집 앞에 무심히 서 있는 낙엽송을 바라다보면 파릇한 봄 냄새부터, 짙푸른 여름의 생생한 기운, 황금색으로 빛나는 가을의 화려함, 빈 가지로 하늘을 받치고 있는 겨울의 쓸쓸함까지 많은 걸 볼 수 있다. 그림책 속에서도 한 그루 나무로 사계절의 자연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책들이 있다.

먼저 소개할 책은 나무를 둘러싼 자연의 변화를 보여주는 <나무>(엘라 마리 그림·시공사)라는 글 없는 그림책이다. 나무는 겨울나무에서 봄, 여름, 가을로 계절에 따라 그 모양새가 변한다. 겨울 하얀 눈밭에는 잎 새 하나 없이 외로이 나무가 서있고, 그 밑 땅속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씨앗들이 웅크리고 있는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주인공인 회색 빛 도마우스가 한구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봄기운이 조금씩 가득해지자 눈을 뜬다. 완연한 봄이 되자 나무에는 새순이 나오고, 눈으로 뒤덮였던 땅도 이제는 새순으로 파릇파릇해 진다. 새들은 둥지를 수리하고 새끼를 낳고, 도마우스도 나무 위로 올라오고, 그 사이 나무는 더욱 푸르러진다.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자,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고 잎들이 붉게 변하고는 하나둘씩 떨어진다. 이제 새들도 마우스도 나무를 떠나고 나면 눈이 내리고 하얀 겨울이 온다. 계절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항상 그곳에 서 있는 나무다. 나무의 모습이 나무와 그 주변 생태가 계절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글 없이 아름다운 그림만으로 알 수 있다.

어른들은 그림책을 볼 때 아마도 글부터 읽는다. 그리고 나서 그림을 보게 된다. 문

자에 익숙한 어른들에게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린이는 전혀 다른 길로 그림책 속으로 들어간다. 글자를 읽지 못하는 어린이는 그림책을 펼쳤을 때 활자는 알 수 없는 기호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흥미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그림이 보여주는 이야기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그림책이란 글과 그림이 결합되어 하나의 이야기 세계를 표현한다. 따라서 그림에도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며, 글로 표현되지 않았거나 또 표현될 수 없는 것까지 담아내는 것이 그림이다. 그림 속에도 단단한 구조와 영상으로 전달되는 리듬이 있고, 화면과 화면의 연결로 꾸며지는 아름다운 상상의 세계가 있다.

그러므로 글 없는 그림책은 단순히 그림책에서 글만 없앤 것이 아니다. 글이 없어도 그림을 통해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어 전개되고 결말에 이르는지를 알 수 있도록 꾸며졌다. 따라서 어른이든 어린이든 독자는 이야기를 소리 내어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오히려 글이 없기 때문에 독자는 장면과 장면을 이어가면서 더 풍부하고 더 자연스런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세 살 어린이가 읽어낸 이야기와 서른 살 어른이 읽어낸 이야기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만큼 글 없는 그림책은 풍부한 세계를 담고 있으니까.

<까치와 소담이의 수수께끼 놀이>(김성은 글·김종도 그림·사계절)는 느티나무에 둥지를 튼 까치와 양갈래로 머리를 묶은 작은 아이 소담이가 우리네 자연의 모습을 수수께끼 형식으로 보여준다. 걸장을 넘기면 면지에서 화가가 스케치한 듯한 느티나무와 작은 들꽃들이, 한 장을 넘기면 이 책의 두 주인공인 소담이와 까치가 인사를 한다. 한 장을 더 넘기면 우리네 작은 농촌 마을의 전경이 펼쳐져 있다. 느티나무가 마을 입구에 서있고, 동네 아이들은 그 곳에서 씨름도 하고 고무줄 놀이도 한다. 아직은 찬 바람이 부는 계절이라 동네 뒷산은 쓸쓸해 보이지만, 밭에는 파릇파릇 풀들이 고개를 내민다.

아직은 어리다고 언니와 오빠들이 놀이에 끼워주지 않아 혼자서 놀고 있던 소담이에 게 까치가 다가와 수수께끼 놀이를 하자고 속삭인다. 첫 번째 문제는 “하얀 우산을 쓰고 훨훨 날아가는 게 무얼까?”이다. 그 질문에 답을 소담이가 찾아가는 과정이 3월, 4





들면서 수수께끼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5월에는 드디어 민들레 씨가 바람에 날리는 걸 보면서 답을 찾게 된다.

답을 찾으면 까치는 새로운 수수께끼를 낸다. 이번에는 “번쩍이며 큰 소리로 우는 것은 무엇까?”이다. 소담이는 앞에서 진행된 것과 마찬가지로의 형식으로 답을 찾게 된다. 즉 6월, 7월, 8월의 계절변화와 자신의 놀이를 보여주는 장면들을 통해서 이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다음 수수께끼도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 지금쯤이면 알 수 있다. 까치가 또 수수께끼를 내고 소담이가 9월, 10월, 11월의 세 장면을 보여주고 답을 맞추고, 까치가 마지막 문제를 내면 12월, 1월, 2월에서 답을 알게 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일반 문학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그림책도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림책만이 갖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바로 이 책에서도 볼 수 있는 반복구성이다. 반복구성은 글뿐만 아니라 책의 전체 구성에 리듬감을 살려주고 아이들이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아이들은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나올 거라는 걸 반복구성의 법칙에 의해 나름대로 추측해 보고 그 예측이 맞았는지 확인하게 위해 책장을 넘겨 확인하고는 즐거워한다. 즉 예측과 호기심이 책장을 넘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반복되는 것은 글만이 아니라 화면의 내용에서도 같은 배경이나 색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야기에서 되풀이되는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야기에 빠져 들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책에서는 사계절의 처음 즉 까치가 소담이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을 항상 까치가 등지를 들고 있는 느티나무 아래로 설정하여 반복되는 구성에 액센트를 주고 있다.

좋은 그림책 소개에 소개된 그림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소개된 그림책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읽으며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들은 다음호에 게재해 드립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한 송이 · 회원

이 글은 지난 호 [좋은 그림책 소개]코너에서 소개된 그림책 “달라졌을까?”를 아이들과 함께 읽고 활동하신 내용입니다.

아이들과 책을 읽기 전 그림만 보고 무엇이 달라졌을까하는 질문을 해보았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의 표정을 보았더니 ‘무엇이 달라졌다는 거지?’ 하는 표정들이었다. 대답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였다. 한 장씩 넘기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나의 목소리 보다는 그림 속에서 달라진 모습들을 찾고 그것에 꼭 빠지기 시작하였다. 서로를 바뀐 주전자, 슬리퍼, 자전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듯하였다.

책을 다 읽고 나는 ‘이제 이야기 나누기를 하면 아이들이 동생이 생겼기에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까’ 하는 고민이 생겼다. 그런데 역시나 아이들과의 이야기에서 아이들의 반응은 달라진 그림들만 이야기 하는 것이었다. 그림의 변화 자체가 아이들에겐 즐거움 이었던 것 같았다. 그 때 한쪽 모서리 부분에서 ‘동생이 없었는데 생겼어요.’라는 말이 들려왔다.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동생을 엄마가 사왔어요.’ ‘엄마가 배가 불러 아기를 낳았어요.’ ‘동생이 생겼어요.’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때 다 싶어 아이들에게 동생이 생겨서 어땠는지 물어보았다. 그건 우리 반에 최근 동생이 생기거나 생길 예정인 아이들을 겨냥해서 한 말이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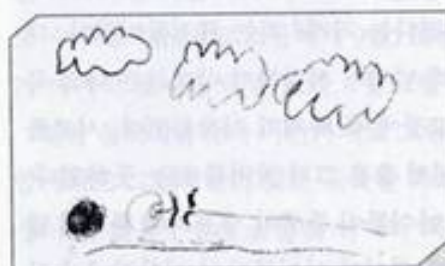
아이들은 ‘동생이 생겨 나랑 놀 수 있어 좋아요.’ ‘동생이 작았는데 커졌어요.’ ‘이제 동생이 생겨요.’ ‘좋아요’라는 말들을 하였다. 동생이 생긴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 아이들은 불안해하거나 없던 버릇도 생기는 아이들이 있곤 했는데 불안한 감정보다는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들으면서 기쁜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3일 후 아이들과 다시 한번 이 책을 읽기 위해 꺼냈을 때 그림을 빨리 보려고 아이들이 모여 앉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야기를 하였다.

책을 넘길 때 마다 집중되는 아이들이 처음과는 다른 그림들을 찾았다. 작은 변화까지도 찾아보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찾은 가장 인상적인 그림은 공을 찰 때 알이 되고 새가 나오는 과정이었다. 또 조셉의 기분에 대해서 아이들은 '무서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물건이 바뀌고 어두워지는 것들이 어른들은 무섭지 않겠지만 아이들은 '무서웠겠다' 라는 반응이었다. 아이들과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반 아이 중 한명을 특별하게 더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얼마 전 동생이 생겼을 때의 반응은 짜증도 많았고, 화도 많이 내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그 때의 느낌들이 지금도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는데,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동생이 있어 좋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였다. 게다가 동생의 성장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교사가 그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머릿속에서 일어난 상상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그동안 여러 상황들을 상상했던 나의 머리가 갑자기 하얗게 변해 버리고 말았다. 미리 상상을 하지 말아야지, 정말.....



공이 땅에 떨어졌어요. 알이 되었어요. (선생님)



공을 찰 때는 알이 부러졌어요. (민서)



조셉이 아빠가 되었어요. (지수)



조셉이 공을 찰려고 했는데
공에 힘이 없어서 잘 굴러가지 않았어요. (선생님)



조셉이 달라져서 너무나 놀랐어요. (해미)



사회지능 프로그램

조인숙 · 부천근로복지공단 시설장

조인숙님은 우리 회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의 소장으로서 재직하였으며, 한자녀 가정의 증가, 인지도교육의 강조의 사회분위기 등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사회성 발달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회지능프로그램을 한국학술재단의 지원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재구성하여 실었습니다.

만약 친구가 내 부탁을 거절하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길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가 나에게 장난감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만약 친구가 나를 놀리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라고 가르치지만 과연 우리 교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당연히 생각되는 대처 방법들이 왜 일상생활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학문에 대한 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나 능력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자들에 의하면 유아기부터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좀 더 능력이 향상되어 유능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였다.

본 사회지능 프로그램은 박남자, 양승희, 조인숙이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것으로 본 어린이집에서 만 3세, 만 4세, 만 5세 유아에게 적용해보고 그 효과를 알아본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2004년 4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약 8개월간 적용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A 어린이집을 비교 집단으

로 선정하여 만 3,4,5세 유아와 사회지능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2004년 4월에는 우리 어린이집 유아들의 사회지능이 낮았지만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11월에 사회지능을 측정해본 결과 비교 어린이집에 비해 현저하게 사회지능이 향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사회지능 프로그램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사회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지적 능력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인간능력에 대한 개념이 전통적으로 추정되어온 학업능력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학업능력이나 일반적인 지능(Intelligence Quotient: IQ)으로 나타내는 학업지능의 영역들은 정신능력에서의 개인차를 완전하게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학문적인 지적능력이 삶에서의 성공을 잘 예측하지 못하는 반면에, 성격적인 특성을 비롯한 사회적 능력이 더 높은 예측변인이라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Barchard, 2001; Epstein & Meier, 1989; Goleman, 1995; Sternberg & Wagner, 1986; Stewart, 1997).

이에 따라, 근래에 발표되는 연구들은 학문적 문제해결능력인 학업지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상에서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인 사회지능(Social Intelligence)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사회지능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감정, 사고, 행동을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적절히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은 대인간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유용한 사회적 산물을 창조할 수 있는 일련의 문제해결기술로 구성되어 있다(Barchard, 2001; Jones, 1995; Jones & Day, 1997; Lee, 1999; Marlowe, 1985; Stewart, 1997).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회지능은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소홀히 여겨져 왔다.

본 프로그램은 Jones(1995)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유아의 사회지능을 결정적 사회지능 영역과 유동적 사회지능 영역의 2개 영역으로 분류한 다음, Wong(1995)과 Riggio(1991)의 이론을 참고하여 결정적 사회지능 영역의 구성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식, 유동적 사회지능 영역의 구성요인으로는 사회적 민감성, 사회 표현성, 그리고 사회 유연성 등 4개 요인을 선정하고 각 요인에 대한 향상을 위한 유아 사회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요인	수 준	내 용
사 회 적 지 식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기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이다. 이 수준에는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인식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이해하고 명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자신의 소유물과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 인식하기	자신의 소유물과 타인의 소유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명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식이 포함된다.
사 회 적 민 감 성	기본적 사회 규범에 대해 인식하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규칙이나 규범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 항목은 아동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사회 규범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민감하게 느끼기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예절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다. 이 수준은 사회예절에 대하여 대상에 따른 적절한 예절바른 언어와 행동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민감하게 느끼기	유아가 타인의 음성, 말투, 표현된 언어 등에 숨어있는 감정 상태를 민감하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민감하게 느끼기	유아가 말하는 사람의 몸짓, 눈짓, 신체자세, 표정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말하는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민감하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사 회 적 민 감 성	인간은 타인과 직접적인 상호작용 을 하지 않아도 항상 주변에 있는 타인의 존재를 의 식하면서 살아간다.	인간은 타인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하지 않아도 항상 주변에 있는 타인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간다. 유아기의 상호작용은 가족에서 타인간의 관계로 확장되므로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어도 주변의 인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시선을 의식하며, 주변의 상황을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회성 발달의 성장과정이다.
	사회적 상황을 민감하게 느끼기	유아들은 가정과 기관에서 다른 사람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주변사람들의 집단역동성(group dynamic)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사회지능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수준은 아동이 주변을 관찰하고 주변의 인간관계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사 회 적 민 감 성	타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민감하게 수용하여 타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지 지함으로 써 인간관계에서 상황적 요인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한다.	타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민감하게 수용하여 타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지지함으로써 인간관계에서 상황적 요인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요인	수 준	내 용
사 회 적 표 현 성	사회적 관계에서 자기표현 하기	유아들은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비언어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 수준은 자신의 상황을 다양한 표정과 적절한 제스처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유아들은 언어를 통해 타인과 상호 작용한다. 이 수준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언어를 자신의 감정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며 사회적 상황에 맞는 언어를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적 상황에 개방적 으로 참여하기	이 항목은 낯선 상황에서 사회관계를 시작하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주도적으로 사회적 상황을 이끌어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적절한 자아개방은 인간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자아노출이나 폐쇄적인 인간관계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친구관계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 수준에서는 유아가 사회적 상황에 적절하게 자신을 노출하여 자아개방을 사회관계에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수준은 유아가 친구를 만들거나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즐기는 등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즐기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기	유아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 부딪치는 낯선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 유아가 익숙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를 잘 이해하고 급변하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을 나타낸다.
사 회 적 유 연 성	사회적 문제에 다양하게 대처하기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 상황이나 갈등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을 자신의 사회 지식을 활용하여 보편적인 사회기준에 적합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회적 상황의 문제 중 특히 부정적인 문제를 기존의 사회적 지식을 반영하여 긍정적 인 상황으로 전환하여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하여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지능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그림책 선정

사회지능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그림책 선정은 아동문학 관련 학자들(이 경우 외, 1997; 김현희, 박상희, 1999; 김세희, 2000)이 좋은 그림책이라 평가한 기준을 참고하여 그림책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적합한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글과 그림의 완성도, 문학적 적합성, 발달적 적합성, 책의 디자인, 독창성 등의 기준에 따라 연령별로 다르게 선정되었으며 3세는 11권, 4세 11권, 5세 14권으로 총 36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2) 활동계획 및 교재 교구 제작

위와 같이 선정된 그림책을 이용하여 사회지능 4개의 요인의 향상을 목표로 하여 활동을 구성하였다.

이 중 만 5세의 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책	활동명
토끼와 거북이	거북이와 나무늘보가 경주를 한다면... 한가와 거북이 놀이 거북이와 토끼의 친해지기 거북이는 우리가 지킨다 내가 만약 토끼(거북이)라면?
순이와 어린동생	동생이랑 자전거 타기 미아 방지 목걸이 만들기 영이를 찾아주세요 미아가 생겼어요! 동생이 있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요. 내 동생
내가 먼저 탈테야	내가 먼저 탈테야 (I) 내가 먼저 탈테야 (II) 내가 먼저 탈테야 (III)

그림책	활동명
홀라홀라 봉봉	동시짓기 "반 내 친구들" 행복카드 내가 만약 봉봉 친구였다면?
그건 위험해	"우리집 안전 이야기" "앗! 세상에 이럴수가." "우리집 안전 숲" 우리집 약속대장 나는 나는 약속대장 I 나는 나는 약속대장 II
DVD- "티모시네 유치원"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 자리에! 우리 반의 "정리요정"을 찾아라! 열 꼬마 인디언. 기자놀이 3고개 퀴즈
으뜸해임이	내 마음을 받아줘! 속상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럴 땐 이럴 땐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내 마음을 보여줄게.
꿈 사냥을 떠나자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 으악 꿈이다! 누구일까? 내가 만약 꿈이라면? 친구를 구해 주세요 그림자 동극
무지개 물고기	나의 소중한 것을 소개합니다. 나누면 기뻐요! 무지개 물고기와 같은 일이 나에게 생긴다면 친구가 필요해요. 퍼즐게임 동극을 해요!

그림책	활동명
아씨방 일곱동무	일곱동무 모여라 바느질 게임 우리반 - 동무 어떻게 해야할까? I 어떻게 해야할까? II 디자이너 놀이
요셉의 작고 남은 오버코트가	단추 콜라주 나의 오버코트 재활용 대장을 찾아라 나도 한 마디 요셉의 작고 남은 오버코트가 그래도 괜찮아요.
팔죽할머니와 호랑이	앗 팔죽머니가 여행을 가요 숨은 그림 찾기 호랑장군 감자 팔경단 만들기 호랑장군 스피드 게임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	여우와 쥐 여우 지뢰를 조심해! 만약에 내가 드소토 선생님이었다면? 여우는 어떻게 되었을까? 치과병원 놀이
엄마를 꺼내 주세요.	어떻게 되었을까? 엄마, 아빠 모두 할 수 있어요. 행복한 우리집

3) 활동의 진행

활동은 1주에 2-3개가 제시되었으며 소집단 활동으로 전개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였다. 활동을 처음 유아에게 소개할 때 소집단으로 실행하였고 한번 해본 활동은 자유선택영역에 비치하여 유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놀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활동예시

사회지식

활동 1. 앓! 팔 주머니가 여행을 가요.

| 활동목표 |

-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표준 사회지식에 대해 인식하여, 일반적 사회규칙이나 규범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사회적 상황에 개방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즐길 수 있다.

| 준비물 |

밀짚모자, 팔 주머니, 팔죽할머니와 호랑이(조대현, 저 / 출판사: 보림)

| 활동방법 |

1. 2팀으로 나눈다.
2. 2명씩 짝을 만들고 한명은 할머니가 되어 팔 주머니를 던지고
한 명은 호랑이가 되어 밀짚모자를 들고 할머니가 던지는 팔을 받는다.
3. 팔 주머니를 3개씩 던질 수 있고 많이 받은 팀이 이긴다.
4. 팔 주머니를 던지는 할머니와 받는 호랑이는 아래와 같이 말해야 한다.



호랑이: (장미선 선에 서서)

할머니 팔죽이 먹고 싶어요? 한 그릇만 주세요.

할머니: (장미선 선에 서서) 오나. 자 받아라!

"할머니 팔죽 한 그릇만 주세요"

"자~ 받아라!"

"알겠습니다. 아아 맛있습니다."

사회지식

활동 2. 나누면 기뻐요.

| 활동목표 |

- 내 것을 친구와 나눌 수 있다.
- 정해진 규칙을 지킬 수 있다.
- 고마워! 라고 말할 수 있다.
- 새로운 게임을 제시했을 때 먼저 시범을 볼 수 있다.

| 준비물 |

1. "무지개 물고기" (마르쿠스 피스터, 글, 그림/ 출판사: 시공주니어)
2. 무지개 물고기 도안 2개
3. 가위, 바위, 보 팻말

| 활동방법 |

1. 게임판을 소개한다.
2. 게임방법을 설명한다.
 - 가위, 바위, 보 팻말 중에서 자신이 내고 싶은 팻말을 선택한다.
 - "가위, 바위, 보"를 외치고 동시에 팻말을 내보인다.
 - 이긴 친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늘(소중한 물건이 적혀 있는)을 진 친구에게 주며 "내가 가진 소중한 거야!" 라고 말하며 준다.
 - 진 친구는 "고마워!" 라고 인사한 후 비늘을 받아서 자신의 "무지개 물고기"에 붙여준다.
 - 비늘을 먼저 다 준 친구가 승리한다.
4. 유아와 함께 시범을 보이며 유아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5. 앞에 나와서 시범을 보인 친구를 교사는 격려해 준다.
6. 정리 영역을 알려주고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눈다.



"가위, 바위, 보!"

"자 내가 소중히 지키는 인형이야!"

"고마워!"

"나도 인형 좋아하는데요..."

와~ 친구가 준 선물로 내 무지개 물고기에

새로운 비늘이 다 붙었습니다.

활동목표

- 순서를 지켜 놀이할 수 있다.
- 친구가 주는 힌트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다.
- 친구가 주는 힌트에 반응하고 수행할 수 있다.

준비물

1. 다양한 호랑이 얼굴 카드 12개 × 2개 / 카드를 붙일 판 1개
2. 그림책: 팔죽할머니와 호랑이(조대현, 저 / 출판사: 보림)

활동방법

- 다양한 호랑이 모습이 있는 판을 소개한다.
- 호랑이 모습 카드를 한 장 보여준다.
- 게임 방법을 소개한다.
 - 1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한다.
 - 2 이긴 친구가 카드에서 한 장을 뽑아 제시한다.
 - 3 진 친구는 이긴 친구가 제시한 카드에 있는 호랑이가 똑같은 모습의 호랑이를 게임판에서 찾아야한다.
 - 4 기회는 2번이다. 만약 1번에 맞추지 못하면 문제를 낸 친구가 힌트를 1번 줄 수 있다. (이 호랑이는 니가 고른 카드의 오른쪽 중에 있어. 이 호랑이는 입을 벌리고 있어.)
 - 5 맞추면 카드도 가져가고 문제를 낼 수 있고, 카드를 다시 게임판에 놓아야하고 문제도 낼 수 없다.
- 어느 영역에서 놀이할지 정한다.
- 게임할 때의 규칙을 정한다.



활동목표

- 규칙을 지켜 놀이할 수 있다.
- 게임에 제시된 힌트를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

준비물

1. 게임판: 퍼즐 조각-24개(치과 의사 드소토 그림 15개, 여우 9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준비한다.
2. 그림책: 치과 의사 드소토(윌리엄 스타이그, 저 / 출판사: 비룡소)

활동방법

1. 게임 방법을 소개한다.
 - ① 퍼즐 조각을 순서 없이 마음대로 스마일 그림이 보이도록 게임판에 놓는다. 이 때 퍼즐 조각 중 여우의 그림이 어디에 놓여지는 지 기억하도록 한다.
 - ②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한다.
 - ③ 먼저 이긴 친구가 퍼즐 조각 하나를 뒤집는다. 만약 치과 의사 드소토 그림이 나오면 그냥 뒤집어 놓고 여우 그림이 나오면 가져간다.
 - ④ 카드를 다 뒤집은 후 여우를 적게 가진 친구가 승리한다.
2. 약속을 정한다.
 - 이 게임을 재미있게 하려면 어떤 약속들이 필요할까?
3. 어느 영역에 정리할지 이야기 나눈다.
 - "여우 지뢰를 조심해" 교구는 어느 영역에 놓아둘까?
4. 놀이 후 조각 영역에 정리하도록 한다.



활동목표

- 자신의 순서를 기다릴 수 있다.
- 자신이 맡은 역할에 맞게 표현할 수 있다.
- 호랑이에게서 빠져 나오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준비물

1. 노랫말 판/ 여러 가지 호랑이 가면(떡을 좋아하는 호랑이, 칭찬을 좋아하는 호랑이, 잠자기를 좋아하는 호랑이, 춤추기를 좋아하는 호랑이)
2. 그림책 : 팔죽할머니와 호랑이(조대현, 저 / 출판사 : 보림)

활동방법

- 노랫말 판을 소개한다.
- 호랑이 모습을 살펴보고 표현해 본다.
- 게임 방법을 소개한다. (원으로 앉아 진행한다.)
- 1 호랑이가 될 친구를 3~5명 정도 정하고 호랑이 가면을 쓴 후 원 안으로 들어간다.
- 2 호랑이가 된 친구들은 노래에 맞추어 신체로 표현한다.
- 3 마지막 "어흥어흥" 하는 부분에서 한 명씩 잡아온다.
- 4 잡힌 친구들은 자기가 잡힌 호랑이의 특징에 해당하는 말을 해야 호랑이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
예) 떡을 좋아하는 호랑이: 호랑이님 제가 맛있는 떡을 드릴게요.
춤추기를 좋아하는 호랑이: 제가 춤을 출 때 입는 예쁜 옷을 드릴게요.
- 5 호랑이를 했던 친구들은 원으로 가서 앉고 호랑이에게 잡힌 친구들이 호랑이 역할을 한다.
- 6 적절한 답을 하지 못한 유아는 호랑이를 할 수 없고 자리에 가서 앉는다.

- 게임에 필요한 약속을 정한다.
- 유아들과 함께 활동한다.
- 게임을 하며 즐거웠던 점을 이야기 나눈다.



"어머~ 34번에 레이스가 달리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짐승이 있는데 집에 가서 가져올게요."
"우와~? 정말이지! 그럴 거야? 다녀오게~"

활동목표

- 자신이 맡은 역할을 신체로 이용하여 상황에 맞게 표현할 수 있다.
- 동극을 제시했을 때 어떤 역할이 하고 싶은지 표시할 수 있다.
- 동극을 관람할 때 떠들거나 방해하지 않을 수 있다.

준비물

1. 스크린
2. 그림책 : 곰 사냥을 떠나자(마이클 로젠, 저 / 출판사 : 시공주니어)

활동방법

1. 동화를 들려준다.
2. 동화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3. 각 상황에 대한 내용을 동작으로 표현해 본다.
4. 그림자극으로 동극을 해 보자고 제안한다.
5. 상황(동굴, 눈보라, 숲, 진흙탕, 강물, 풀밭)마다 3~4명씩 팀을 정한다.
6. 활동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① 교사가 해설을 맡는다.
② "아! 아니지"라는 말이 나오면 등장하여 상황을 몸으로 표현한다.
③ 내가 맡은 상황의 표현이 끝나면 제자리로 와서 앉는다.
7. 역할이 정해지면 규칙을 정하여 활동한다.
8. 활동 후 재미있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곰 잡으러 간단다. 큰 곰 잡으러 간단다.
어라! 물발이갈아
넙실대는 기다란 물길
그 위로 지나갈 수 없네
그 밑으로도 지나갈 수 없네
아! 아니지 물발은 빠지고 가면
되잖아! 사각 사각 세척세척"

활동목표

- 자신이 만든 요리를 타인과 나누어 먹을 수 있다.
- 친구와 함께 만든 요리를 소개할 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요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친구와 함께 만든 요리를 소개할 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준비물

1. 요리 순서도, 요리 재료(감자, 팔)
2. 그림책 : 팔죽할머니와 호랑이(조대현, 저 / 출판사 : 보림)

활동방법

- 오늘 만들 요리를 수수께끼로 소개한다.
- 요리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 1 감자를 삶아 으낸다.(물지 않도록 주의)
 - 2 팔을 삶아 고물을 만든다.
 - 3 감자를 동그랗게 빗어 팔고물을 묻혀 완성한다.
- 요리 하기 전 주의해야할 일을 알아본다.
- 팀을 나누어 교사와 함께 요리 활동을 진행한다.
- 완성된 감자 팔경단에 이름을 붙인다.
- 만들어진 요리를 친구, 동생, 선생님들과 나누어 먹는다.
- 요리는 나누어 먹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눈다.



활동목표

- 세월의 변화로 생겨난 새로운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 디자이너는 남자, 여자 모두 할 수 있는 직업임을 알고 놀이할 수 있다.
- 자신의 맡은 역할에 맞게 친구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준비물

1. 그림책 : 아씨방 일곱동무(이영경, 저 출판사 : 비룡소)
2. 종이인형, 종이, 색연필, 싸인펜, 가위, 반쪽이 풀, 줄자 등

활동방법

1. 종이 인형을 소개한다.
2. 옷을 만드는 직업이 현대에서는 디자이너라는 직업임을 알려주고, 디자이너에 대해 소개한다.
3. 디자이너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임을 알려준다.
4. 종이 인형 옷을 만들어 주자고 제안한다.
5. 디자이너 놀이를 제안한다.
6. 디자이너 놀이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 본다.
7. 디자이너는 손님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눈다.
8. 손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눈다.
9. 역할을 정한다.
10. 어느 영역에서 놀이할지 이야기 나눈다.
11. "디자이너" 역할놀이에 필요한 소품들을 역할놀이 영역에 놓아두고 자유선택놀이 시간에 놀이하도록 한다.



"나는 꽃이 그려진 옷을 만들어주세요"

"나는 다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바지를 길게 만들어 주세요."

"네, 저는 바지를 잘 만드는 디자이너예요."

3. 활동결과

"승연--- 연필 좀 주구려~!"

"자 - 여기 있다!"

"고맙구려~"

위의 대화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연필이 필요한 유아가 연필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한 대화입니다. 장난이 섞인 대화이지만 우리들의 대화 속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해준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회지식 및 예절이 들어간 대화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 했던 말을 일상생활에서 응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이 짧은 기간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사회지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한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 것.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일지 모르지만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 쉽게 가질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미래의 삶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아이들 옛 노래와 놀이〉로 아이들에게 삶의 환희를! -네번째-

고 정 미

회원 / 한국보육교사회 전통교육연구팀원

아이들과 함께 풍물을 이어가는 사람들 '풍물깨비' 연구원 / 유아국악강사

지지난 호였었던가요? '어디까지 왔니? 놀이를 소개한 것이?

'어디까지 왔니? 놀이에서 마지막에 "다 왔다!" 하면서 눈을 뜨잖아요~, 합성을 지르면서.....

그런데 조금 다르게 놀아봤거든요~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가다가 "다 왔다!" 하면서, 앞대장이 다른 친구들을 잡으러 갑니다.

술래잡기놀이로 확장이 되는 것인데,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구요~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긴장감과 환희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호부터는 '강강수월래'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강강수월래' 프로젝트수업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게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강수월래'의 유래에 대해 여러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설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쪽의 해안지방이나 도서지방에서의 옛 민중들의 삶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잦은 외세의 침략과 기약없는 남정네들의 고기잡이와 생활의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여인네들의 삶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하게 떠오른 보름달, 오래간만에 남정네들은 집에 있고, 넓은 공터에 여자들이 모여 손에 손을 잡고 보름달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설움과 앞으로의 삶의 희망을 놀이 속에

답아냈다는 것입니다.

다산과 풍요가 그 시대의 절대 절명의 소원이었으며, 그런 소망들을 '강강수월래'라는 놀이 속에 담아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놀고 있는 '강강수월래'는 하나의 잘 짜여진 작품이지만, 그때는 손에 손을 잡고 둥그런 원을 그리며 여러 가지의 형태를 만들면서 놀았던 원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강수월래'의 순서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강강술래 걷기(경쾌하게 걷기-느리게 걷기)-강강술래 뛰기-남생이놀이1-남생이놀이2-개고리 타령-고사리 꺾자-청어 엮기-덕석물이-문지기 놀이-지와 밭기-(손 치기받치기-발갈이가세)-문쭈새끼놀이-강강술래 뛰기-강강술래 걷기

각각의 부분놀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활동명 | 남생이놀이 -자진모리장단-

남생아 놀아라 / 출래출래가 잘논다

남생아 놀아라 / 출래출래가 잘논다

(멋있는 친구)놀아라 / 출래출래가 잘논다

남생아 놀아라 / 출래출래가 잘논다

남생이 놀이1은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서서 지명되는 친구들이 원안으로 들어가서 춤을 추고 나오는 놀이이다. 첫 번째의 '남생아'는 원안으로 들어가서 놀라는 뜻이고, 두 번째의 '남생아'는 이제 그만 나오라는 뜻이다. 아이들의 특징을 살려서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음식, 머리모양, 입은 웃...등등 다양한 내용으로 부르면서 놀면 좋겠다. (일어서서 하기가 어려울때는 둥그렇게 서로를 보고 앉은 상태에서 진행해도 재미있다.)

청바지 입은 친구 놀아라 / 출래출래가 잘논다

남생아 놀아라 / 출래출래가 잘논다

그림책 좋아하는 친구 놀아라 / 출래출래가 잘논다

남생아 놀아라 / 출래출래가 잘논다

달리기 좋아하는 친구 놀아라 / 출래출래가 잘논다

남생아 놀아라 / 출래출래가 잘논다

| 활동명 | 남생이 놀이2 -자진모리장단-

남생아 놀아라 / 출래출래가 잘논다

어화색이 저색이 / 곡우남생이 놀아라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론다

청주뜨자 아랑주뜨자 출나무초야 내젓가락 나무젓시구갱갱

둘이서 짝을 지어서 노는 놀이이다.

양손을 마주잡고 옆으로 선다.

옆으로 선 방향으로 자진모리2장단을 뛰면서 돈다(남생아 놀아라 / 출래출래가 잘논다). 반대방향으로 자진모리2장단을 뛰면서 돈다(어화색이 저색이 / 곡우남생이 놀아라). "곡우남생이 놀아라"하면서 짝을 마주보며 선다. 처음에 섰던 자리로 한번 편다. 다시 원래 자리로 온다(익사 적사). 반대편으로 한번 편다. 다시 원래자리로 온다(소사리가 내론다). 양손을 마주잡고 뱅이가 돌 듯이 돌다가(청주뜨자 아랑주뜨자 출나무초야 내젓가락 나무젓시), 마지막에 '구갱갱!'하면서 자리에 앉는다. 이때 짝의 손을 놓치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어른과 하게 되면 아이들은 공중으로 떠서 돌게 된다.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공중으로 돌게 되는(아이들은 날라 간다는 표현을 쓴다)순간을 매우 좋아한다. 이때 아이들 손목을 잡으면 팔이 빠질 열려는 없다.

| 활동명 | 개고리 타령 -자진모리장단-

개고리 개골쳐언 / 방죽안에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라면 / 아양팔을 똑똑건고

미나리방죽을 더듬어

개구리를 소재로 한 이야기가 있으면 들려준 후, 이야기에 등장한 개구리를 생각하며 흉내를 내어본다.

자연스럽게 노래를 들으면서 개구리 뛰기를 흉내내본다.

익숙해지면, 여러 가지 모습의 개구리를 상상해보고 활동을 확장해본다.

앞으로 뛰는 개구리,

제자리에서 높이 뛰는 개구리,

뒤로 뛰는 개구리,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뛰는 개구리.....

노래가 익숙해지면 노래를 부르면서 위의 활동을 해본다.

노래와 동작과 장단이 딱딱 맞아떨어지기에 더욱 재미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아직 개구리가 안 되었다고 하면서 올챙이 흉내를 내며 기어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

뒷다리가 쭉-앞다리가 쭉-꼬리는 쏙 들어가고 팔딱팔딱 개구리 되었는데-하며 개구리 뛰기를 시작해도 재미있다.

[참고자료] 옛이야기 '이상한 남비'

"선생님이야기 좀 들어보렴,

저기 계양산 말이다, 왜 지난번에 엄마들이랑 아빠들이랑 함께 소풍갔었던 산 말이야. 옛날 옛적 그 산 밑자락에 어느 선비가 살았는데 그 선비는 가난한 살림살이였는데도 맨 날 맨 날 방안에 앉아서 공부만 했대. 그러니 그 아내는 매일 밭일하라 논일하라 집 안 일하라 너무 너무 바쁘고 힘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내가 밭일을 하러가면서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이 선비에게 말을 했어, 마당에 벼를 넣어놔오니 잘 좀 봐달라고. 그래 이제 이 아내는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저 산 쪽에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야. 먹구름이 오면 비가 오잖아. 어떻게 해? 불안한 마음에 냇따 집으로 뛰었지. 아니나 다를까 마당에 넣어놓은 벼는 벌써 비바람이 다 날려버린 거야. 너무나 속상해서 그대로 마당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 이제 우리는 쌀이 없어서 밥도 못해먹는다고 하면서.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던 선비가 이 소리를 들었나봐. 읽던 책을 덮으면서 한숨을 췌-하고 쉬더니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그러면서 아내에게 집 잘 보고 있으라고 하면서 길을 떠났어.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쪽 눈에 뭐가 꿈지락 꿈지락 거리는 게 보여. 그래 저것이 뭐가 하고 가봤어. 그랬더니 요만한 올챙이들이 눈에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 저-쪽 물이 있는 논에다가 올챙이들을 놓아주었지.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좋은가봐 꼬리를 흔들며 이 쪽 저 쪽으로 막 움직이는 거야. 그래 이제 기분이 좋아진 이 선비는 아이고 이 녀석들 잘 놀아라! 하면서 다시 길을 떠났어. 그러다가 산에 가서 나무를 베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도끼로 한번 쿵 찍으면 큰 나무들이 우직하고 쓰러지는데 이 선비는 도끼로 몇 번을 찍어도 나무들이 꿈쩍을 안하는 거야 그러니 이 선비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니? 그래 이제 몇 날 몇 일을 그러고 있으려니 베는 배대로 고프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옷은 시커멓게 되고.....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나봐. 그냥 집이나 가야겠다 하네. 다시 터덜터덜 거리며 집으로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논에서 개구리들이 폴짝 폴짝거리며 나오는 거야. 한 백 마리도 넘나봐. 그러니 선비가 길을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 이제 선비는 웬 개구리들이 내 길을 가로막나하며 하고 있는데 한 개구리가 선비 앞에 다 찌그러진 남비 하나를 갖다 놓더라. 선비가 그 남비를 집어드니까 개구리들이 개굴 개굴거리며 다시 논으로 뛰어 들어 가더라. 아- 내가 살려주었던 올챙이들이 개구리가 되어 고맙다고 나에게 이렇게 찌그러진 남비를 선물해 주는 것이구나- 싶어, 그 남비를 달랑 달랑 들고 집으로 들어갔지. 그래 이제 아내는 오랜만에 선비가 집에 오니 얼마나 반갑겠니? 그런데 이걸 영악 없는 거지꼴이니 속이 상해 죽겠는 거야. 한술 더 뜨네. 보자마자 배가 고프니 밥을 달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해- 밥은 쥐야 할 거야. 아내가 딱 한 톨 남은 쌀을 그 다 찌그러진 남비에다가 넣고 물을 넣고 끓였어. 조금 있다가 밥이 다 되었나 하고 남비 뚜껑을 딱 열었는데, 분명 쌀을 한 톨을 넣고 끓였는데 밥이 남비 하나 가득 있는 거야. 그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선비보고 빨리 오라고 했어. 급하게 뛰어온 선비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거야. 바로 개구리들이 준 그 찌그러진 남비는 요술 남비 였던거야.

선비랑 아내랑 그 밥을 허겁지겁 먹고서는 달랑 하나 남은 동전 한 잎을 그 남비에다 넣고 끓였어. 부글부글 끓길래 조금 있다가 가서 그 남비 뚜껑을 딱! 하고 여니까, 어떻게 되었겠니? 그래- 남비에 동전이 하나 가득 있었던 거야. 그래 이제 이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먹고 좋은 옷도 사서 입고했어. 그 다음에 동전을 또 한잎 넣고 끓여서 멋진 집도 짓고 쌀도 사고, 또 끓여서 못도 하고 못도 하고.....그랬대. 그러던 어느 날 글썽 또 동전 한잎 넣고 부글부글 끓였는데, 그만 그 남비에 구멍이 난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동전을 넣고 끓일 수가 없었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6살 여자 친구가 너무나 안타까운 표정한 지으면서 말한다.

“아이, 딱 세 번만 끊이지~”

또 다른 어떤 친구는 구멍 난 곳에 대일밴드를 붙이면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일밴드의 위대한 힘이어~

‘강강수월래’ 놀이의 대부분은 자진모리장단에 해당됩니다.

특히 경쾌하게 걷고 뛸 때는, 자진모리장단에 해당하는 장단놀이를 충분히 해주면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과 잡은 손을 잡아당기지 않아야 함을,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뚱뚱-뜨는 느낌으로 앞으로 가야함을 꼭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자진모리장단에 해당하는 장단놀이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호에는 ‘고사리 경자’ 놀이부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모리장단 및 장단놀이

덩		덩		덩		따	쿵	따	
하	나	두	울	세	엣		네	엣	

아이들 옛 노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단이다.

굿거리장단보다 조금 빠르게 몸으로 네 번 호흡을 하는데, ‘치고 달고 땀고 푸는’ 과정을 제대로 해야만 그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첫 번째 ‘덩’과 세 번째 ‘덩’에 강을 주며 입장단을 해보고, 입장단과 함께 ‘치고 달고 땀고 푸는’를 함께 외쳐본다.

땅		도	땅		도	내		땅	이	다
뼉		뼉			참		새	뼉	뼉	

와 같은 이야기구음을 함께 하면 더욱 재미있다.

앞아서 몸 장단과 입장단, 무릎장단이 익숙해지면 일어서서 오금질을 하며 안으로 들

어갔다 밖으로 나왔다 여러 가지 진을 잤다 풀었다 하게 되면 재미도 있고 자진모리장단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하는 데 좋다.

뒷부분 ‘덩-따쿵따’ 대신에 네 글자 단어놀이를 하는 것이다.

앞부분 ‘덩-덩’은 고정시키는데, 이는 그 장단의 호흡의 속도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부분 덩-덩-을 빨리 하면 뒷부분 역시 빨라지며 빠른 자진모리장단이 되는 것이고, 앞부분 덩-덩-을 느리게 하면 뒷부분 역시 느려져서 느린 자진모리 장단이 되는 것이다.

덩-덩-어 린이집

덩-덩-엄 마아빠

덩-덩-사 랑해요

뚱뚱 네 글자로 된 단어로 장단놀이를 하는 것이다.

덩-덩-바 퀴벌레

덩-덩-무 당벌레

덩-덩-배 추벌레

뚱뚱 같은 개념의 단어를 나열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역시 뒷부분 ‘덩-따쿵따’ 대신에 앞사람 혹은 뒷사람 혹은 옆사람의 등을 두드리고, 주 무르고, 꼬집고, 간질이고, 껴안고...뚱뚱의 신체놀이를 하는 것이다.

이때 입장단 ‘덩-따쿵따’ 대신에 두-드려요, 주-물려요, 아-아아아, 간-질간질,사-랑해요...뚱뚱으로 바뀌어 해보는 것도 재미있다.

자진모리장단에 맞춰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서 휘모리장단처럼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왔다가 옆으로 들었다가 달팽이진도 만들었다가 풀었다가 실꾸리로 감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동작들은 자진모리장단놀이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왔다 할 때 ‘전득아 전득아’ 노래를 부르며 말을 차는 활동으로 확장해 볼 수 있겠다.

주의할 것은 내 몸이 앞으로 달려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위로 뜨는 느낌으로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치기도 하지만 그래야만 올바른 호흡이 되며 장단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문제행동? 무엇이 문제일까?

윤 선 영 · 본회 전문위원, 건양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함께 생각해 봅시다’에 올라온 보육교사들의 고민은 본회 홈페이지(보육활동상단)에 올려진 글들을 정리하여, 함께 생각해 볼 지점에 대해 윤선영선생님께서 기고해 주시는 글입니다. 상담내용에 있는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하였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현장연구 작업을 할 때 마다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제기하시는 문제는 바로 어린이들의 특별한 (문제) 행동지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아”들의 특징을 보면 일반적으로 남자 아이가 많았고, “문제행동”의 특징은 주로 한 가지 행동이 지나치게 강한 (개별성)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인 (사회적인 관계)에 바로 그 “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행동이란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행동들 중 위의 질문에서 나타났듯이, 승부욕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만지기를 좋아하거나 너무 산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주로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실험하는 행동과 타인(또래)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의 개별성이 두드러지게 강해지고 있다는 것과, 둘째 요즘 아이들이 영유아기의 발달과정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 셋째 아이들이 행동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어느 특별한 아이들의 개별적인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자라는 우리네 아이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교사들이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로 부모(교사)의 양육방식(교육풍토)과 양육환경(사회와 가족의 상황)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결국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인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로 표현된 질문만을 가지고 아이 하나하

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단편적인 행동유형을 일반화 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고민 하나**

한 아이가 있는데, 7세 남자아이예요. 그런데 승부욕이 너무 지나쳐서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해야 해요. 1등을 못하면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막 성질을 부리고, 씹씹거리고, 하루 종일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하곤 합니다.

집에서도 자신의 하루 일과를 점수로 매겨달라는 등.. 점수와, 승부욕 하는 것을 좋아 한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보상을 받게 되는 것에는 적극참여지만 그렇지 않으면 산만합니다. 친구들과 게임을 할 때, 자기편이 지면 너무 때문에 졌다고 마구 떠 친구들에게 성질을 내는 통에 항상 게임할 때 아이들이 그 아이 편에 있길 싫어합니다.

고민 둘**

저는 6세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희 반의 한 아이의 행동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상담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형철(남아)이는 인지적인 면으로는 똑똑한 아이입니다. 숫자도 거의 백 자리... 까지 잘 인지하여 차번호도 천백이십일 이렇게 읽을 정도의 수준이고, 한글도 받침 있는 글씨까지 읽을 수준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활동의 집중 시간은 긴 편입니다. 그런데 한번 마음에 드는 교구가 생기면 계속 그 교구만 하고, 다른 친구가 가서 함께 하려고 하면 “아아아...” 하고 어린 아이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울먹이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자기가 잘못하는 행동에 대해 “형철이가 같이 안하려고 해요. 형철이가 만지려고 해요”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한 여자 친구에게만 가서 목을 잡거나, 등을 만지거나, 다리를 만지거나 합니다.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자리에 앉을 때나, 활동을 할 때도 늘 그 친구에게만 갑니다. 그리고 제가 다가서면 “형철이가 민정이를 만지려고 해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식사시간에 줄을 서서 받을 때도 꼭 한자리만 앉기를 고집합니다.

그리고 같은 반 친구를 가리키며 “이름이 뭐예요?” 라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으음~ 이름이 뭔데?” 라고 물으면 “순이예요.” 라고 자기가 대답해줍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는 거의 교실에 있는 교구를 만지거나, 쓰레기통 뚜껑을 만지거나 문고리나 문을 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상담 후 어머니께서 상담소에 다녀오셨는데, 아이의 행동을 집에서 억제하는 것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목을 만지는 것은 가장 부드러운 곳이라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받아드려서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이 집에서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줄일 수도 없구...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고 함께 지내면 괜찮은데 단체생활 속에서, 홀로 다른 행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잘 잘 듣는 절제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큰소리로 야단도 쳐보긴 했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아이에게 더 상처가 될 것 같더군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좀 더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 셋 ***

저희반 아이는 6세입니다. 요즘은 교실을 뛰어다니거나, 친구를 돌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싶어 하지 않고 계속 변명을 합니다.

너무나 에너지 발산을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활동할 수 있는 태권도장에 다니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는 5세 때 다른 유치원 다닐 때 보다 많이 나아진 상태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혼자서 교구활동 할 때는 집중을 잘 하는 편입니다. 학습 할 때는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완성도를 보입니다.

제가 교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의 특성을 잘 알고 아이들을 이해하는 면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이들을 야단치기보다는 이해하고 아이들의 심리를 적용하여 즐거운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고민 하나 *에 대하여 |

승부욕이 강한 아이는 분명 승부에 대한 자극을 지나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다 못해 보상이 없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흔히 말하는 "일류병"의 기초 행동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과 보다는 과정이, 혼자만 최고 보다는 함께 잘 해 나가는 것, 보상이라는 조건에서 보다 서로 돕는 것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을 아무래도 적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요즘은 자녀수가 많지 않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욕심은 소수의 자녀에게 쏠리게 됩니다. 게다가 외가와 친가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과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인들은 가뜰이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비인간적인 요구가 강하게 지배적인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아이들에게 삶을 가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게임은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과정을 정돈한 놀이의 한 가지 규칙일 뿐 어떤 "일"이라는 본질적인 것에 앞서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승부 속 그 늘진 곳에 숨어 가려져 있는 것들을 아이가 발견하고 즐거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인들이 먼저 찾아보고 즐거움을 느낄 줄 알아야겠지요. 너무 인지 영역만을 일깨우고 촉진하는데 치우친 게임을 통한 활동보다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놀이, 못 맞추거나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놀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놀이,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여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놀이 방식을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좀 더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민 둘 **에 대하여 |

인지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아직 자기 이름을 제 3자 인양 부르는 아이가 무엇이든 만지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만 2-3세 쯤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자신과 주변세계(타인)가 하나로 느꼈던 아이의 의식은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주변세계의 경계를 체험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제까지는 어머니 아빠가 자기를 부를 때처럼 자기의 이름으로 불렀다가, 이제 "나"라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6세가 되도록 자기와 주변세계가 하나인 세계 속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본래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모든 감각으로 주변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주변세계와의 연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만지고 있다는 것은 혹시 자신과 주변세계와의 경계를 더 체험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마저 금지한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촉감은 자신과 주변세계를 연결하는 문입니다. 세상을 촉감으로 느껴보는 일은 곧 자신을 느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촉감은 생의 초기에 가장 중요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형성해 주는 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인들은 복잡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일이 허다합니다(자기 아이가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에 대하여도 무감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하다 보니 때로는 내 자식과 진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스킨십입니다. 그냥 귀엽다고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진정으로 함께 하는 일입니다. 저녁이나 낮잠 자기 전에 부드러운 전신 마사지나 발 마사지를 해 주며 아이와의 관계를 많이 느껴 보는 일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인간과의 상호작용 보다 기계와의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며 자라는 요즘 아이들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아이의 하루 일과가 세상과의 관계 형성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관찰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 셋 ***에 대하여 |

기운이 남아도는 그리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아이에게 우리 성인은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혹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똑같이 때려주어 아픈 맛을 보여주거나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돌파구로 공격적인 운동을 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오히려 공격적인 행동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적인 행동으로 맞서서 처벌을 가하는 일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매나 먹이로 행동을 조정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유아기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운

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태권도는 자유스러운 움직임이나 자기의 의지에 의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정해진(기계적인) 형태의 움직임이고 또한 기합소리는 더더욱 유아들에게 적절한 소리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공격적인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히려 행동의 제한이 심한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TV나 비디오를 너무 보거나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경우 움직임이 많아져 되는 시기에 행동이 억압되었다가 분출되는 양상으로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린이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공격적인 장면들도 한 몫 거들기도 하구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자발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예전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장난감이나 교구도 거의 인지 중심의 가볍고 정교한 것들이 많습니다. 무겁고 힘을 써서 움직일 수 있는 큰 나무둥지나, 땅을 파고 삽질하며 정원을 가꾸어 보는 일들은 거의 하지 못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인간적인 움직임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현대에 사는 우리 성인들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아마 모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행동을 금지시키거나 야단치는 일이 "문제행동"을 수정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조건 금지시키거나 야단치는 일은 아이에게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즉, 성인의 교육 책임을 아이에게 떠넘기는 일입니다(사실 혼내는 일이 고민할 필요 없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훈육 방법이지요). 그러면 성인은 자기의 할 일을 다 했고, 너만 조심하면 된다는 식이라 일단은 해결된 듯하지만, 사실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는 아직 스스로 자기의 문제에 대하여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것을 성인이 대신 고민해 주어야 합니다(사실 모든 원인은 우리 어른(부모나 교사)과 환경에 놓여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 방법을 아이에게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먼저 문제와 관련된 삶을 개척하여 살아 나가면서, 아이가 스스로 그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삶의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도 결국 "문제"는 우리의 것이지 아이들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지요. 그러니 해결에 대한 책임도 결국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교사와 부모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 자세히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새터 엄마, 아빠랑 아이들이 꾸미는 아이들 세상

출처 · 새터어린이집 홈페이지

고소한 밤

어린이집에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킴을 파는 포장마차를 지나치는데 뒤킴 냄새가 납니다.

용이: "아빠, 고소한 냄새난다."

아빠: "어, 맞아. 뒤킴 냄새 난다. 그치."

한참 후,

용이: "아빠, 고소한 밤."

아빠: "뒤킴? (어리둥절)"

용이: (역정을 내며) "고소한 밤, 노래 불러달라고."

아빠: "고소한 밤? 고소한 밤이 뭐야?"

용이: "아이, 고소한 밤~, 거룩한 밤~ 있잖아."

집까지 가는데 주용이 눈치 보며 웃느라 죽는 줄 알았답니다. 계속 "고소한 밤~ 거룩한 밤~" 노래도 불렀구요.

채비는 누구지?

바쁜 아침시간 시간이 촉박한지라, 아빠에게

엄마: "준영이 나갈 채비 다 해놔었으니까 빨리 준영이 어린이집에 데려다줘요."

준영: 엄마. 채비가 누군데?

따뜻한 용가

용가가 안 나오는 지 용이가 짹짹댄다.

결국 안되겠는 지 닭아달라고 한다.

엄마: 용가가 시원하게 안 나와?

용이: 용가 따뜻했어!

라면 꿈

용이가 자다가 꿈을 꾸었는지 막 운다. 등을 토닥이며 달래면서.....

엄마: 어어~ 용이~ 누가 그랬찌!

용이: 엄마가 라면 안줬잖아!

엄마: 엄마가? 왜?

용이: 물르고! 잉잉~(말하면서 더 운다)



엄마가 되려고 하니.....

이 교 진 · 회원

4월이 출산 예정인 예비 엄마이고 올해로 10년차 교사가 됩니다.

10년을 근무하면서 교사로서 잘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지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퇴직하고, 새택으로 지내다가 임신 후 입덧이 가라앉자,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여 마침 개원하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있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한 5개월 근무하고 2월 마지막 날 어제 또, 퇴직하였습니다.

근무일수는 가장 짧은 곳이었으나 교사로서 새로운 경험과 전환점을 맞이한 곳입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만 0세부터 36개월까지 입학가능하고, 담임반인 바다 반은 12개월부터 24개월 미만 영아들이 반일반과 종일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아이도 있고, 둘째 아이 때문에 큰 애를 원에 보내는 가정도 꽤 있었습니다.

영아반은 처음이라 첫 한주는 우왕좌왕, 낯을 가리면서 배를 쓰는 영아에게 우유병 물리는 요령을 몰라 배를 끌리고, (안 먹겠다고 하는 줄 알고), 울고불고 하는 영아들 속에서 그나마 잘 노는 아이를 잡고 노래 불러주고 같이 놀아주면서 주의를 끄는라 초겨울 비지땀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영아들도 나도 서로에게 적응하면서 점점 변하는 내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 전보다는 느긋해졌다고 할까?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에는 앞에서 끌고 나가려하고 못 따라오면 답답해하고, 왜 이러지? 못마땅해 했는데, 지금은 같은 눈높이에서 아이하나하나의 반응을 살피면서 그 아이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와 함께 상담을 할 때도 엄마의 고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격려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동주는 24개월로 6월에 동생을 봅니다. 아빠의 늦은 귀가로 인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잠투정이 심해 한밤에 깨어나 엄마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런 동주네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았고, 잠의 중요성과 가족들이 함께 해야 할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로 이젠 동주는 엄마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잠 잘자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엄마와 편안한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3년 돌봄현장연구모임 할 때 교사/엄마의 사랑과 역할 차이에 대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저는 딱 잘라 엄마는 주관적이고, 교사는 객관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때 난 아가씨 교사였고, 엄마의 심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몰랐지요. 다만, 우리 엄마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동안 보아온 자모들을 통해 반응 유형을 알고 있는 정도였지요. 논의 때 엄마인 교사도 함께 했는데 그 분의 말씀을 듣고 아— 그랬겠구나! 하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내 속에서 뚱뚱거리면서 노는 아이가 궁금한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뛰하고 있는지 잘 놀고 잘 먹는지 궁금한 부모의 마음이나, 누구를 닮았을까 어떤 성격일까 하고 궁금한 나처럼, 성장과 발육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영아반 교사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려고 보니, 기본생활습관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먹거리, 잠, 대소변에 관심이 갑니다. 임신 전에는 열 반 영아의 기저귀 가는 것이 "일"로 여겨졌다면, 지금은 변비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 안쓰럽고, 대변의 색과 모양을 살피면서 건강상태를 짐작하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교사와 엄마의 역할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교사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시간의 제약이 있다면 그 반대는 엄마의 몫일 것입니다. 집에서부터 공갈젖꼭지를 빨고 온 12개월 도현이는 교사가 그것을 빼도 울지 않습니다. 저녁에 엄마를 만나면 달라고 보챈다. 어린 도현이도 그 차이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가 엄마가 되는 것은 그 개인의 사생활에 큰 변화이면서 또한 직업인으로 많은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봅니다. 제의 경우, 아마 아이를 낳고 직접 키우면서 육아 고민과 맞벌이의 고충을 실제로 겪으면 나를 거쳐 간 자모나 앞으로 만날 자모를 심분 이해하리라 여겨집니다.

좌충우돌 늦각이 초보엄마의 육아일기

제4탄 모유수유의 산을 넘고~ 미운남편도 다독여가며 이룬 쾌거! 백일..

김수연 · 회원

5월 13일

영복씨와 함께 병원에 갔다. 대변검사결과 균은 없단다. 계속 설사를 해서 금식 후 미음을 먹이기로 했단다. 엉덩이가 많이 짓물렀다면 딸을 보여 주웠다 엉덩이가 새빨갳다 못해 헐었다 얼마나 아플까...

돌아오는 길, 눈에 밟힌다. 아픈거린다. 보고 싶을 뿐이다. 엄마만 편하게 지내고 우리 딸은 아픈데...엄마가 많이 미안해...

5월 17일

병원에 전화해보니 회원 이란다 야~호 신난다. 면담하고 회원수속 밟고 집에 왔다 정말 이지 지난 시간이 꿈만 같다. 집에 온 우리 딸 잠도 잘 자고 우유도 잘 먹는다. 아 그런데 도우미 아주머니도 가시고 어머니도 가시자 울기 시작하더니 밤12시부터 새벽5시까지 울고 보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물어도 좋다 아프지만 말아다오!!

5월 21일

젖꼭지만 보면 양하고 울어대던 딸이 하루 종일 굶고 엄마 속 태우더니 이제 조금씩 빨더니 저녁때쯤에는 꿀떡꿀떡 잘도 먹는다. 예고 예고 귀여워라. 모유 수유에 성공한 것 같긴한 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다. 젖꼭지가 무지 아프다는 것이다 잘 못 물려서 그런 것 같다 모유수유전문가를 찾아가 보아야겠다.

5월 28일

우리 딸 이름을 에온이라고 지었다. 어질 에에 온화할 은! 출생신고도 했다. 감개가

무량! 우리 집 등본에 어엿이 자리 잡은 이름 박예은!!

5월 31일

새벽1시. 예은이가 깨어났다. 지금을 대비하여 어제 많이 자둔 것 같은데 여전히 피곤하다. 젖을 먹이고 트림시키고 재우고 누이려고 하면 화들짝 놀라 깨어난 후 다시 울기 시작한다. 이러기를 반복- 예은이도 나도 지쳐만 간다. 예은이는 자지러지게 울어 대고 나는 안쓰럽기도 짜증나기도 예쁘기도 귀엽기도 한 울 딸을 조심스레 쳐다본다. 예은아빠 출근하려고 일어난 것을 보고 짜증에 지친 내가 한 소릴 했다 "너네 아빠는 자명종 소리에는 깨도 내 울음소리에는 깨지도 않는단다" 까칠하게 나가는 예은아빠가 밍기도 불쌍하기도 하다. 아까는 집에 와서 누워서 버둥거리며 자기도 사랑해 달란다...

6월 1일

도우미 없는 첫날을 보냈다 아침 내내 밤에 보채는 것처럼 보챈다. 너무 힘들고 짜증이나면서도 안쓰럽고 속상하고 그러다 문득 아이에게 신경질을 부리는 나를 발견하였다. 순간 창피하고 미안하고- 뽀뽀 물어대는 예은이에게 험박을 하고 있던 나는 깜짝 놀랐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예은이를 달래자 예은이는 점점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알면서도, 그러면 아니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 키우는 일이란 정말 녹록치 않은 일이다.

반성 또 반성했다 미안하다 아가야 침착한 엄마모습 잊지 않도록 노력할게 그러구 또 하나 아이 앞에서 남편 험담하지 않기도 말아야. 미안해! 예은아빠!

7월 8일

고등학교 동창모임에 갔다. 엄마들 나이는 같지만 아이들 나이는 천차만별이다. 초등학교3학년에서부터 7살 5살 그리고 3개월 된 우리 딸 까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운 친구들이 많아서인지 손 탄다며 아이를 안아서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친구들의 목소리가 모아졌다. 그에 대응하는 나의 이론(?)은 늘그막에 아이를 낳았더니 이때 죽겠다였다...;; 잠시 생각해 본다 손 탄다며 혼자 지치게 두어 엄마를 찾지 않고 포기하는 법을 빨리 배우게 하는 게 나은 지, 엄마가 무지하게 힘들어도 안아주고 반응해주어 존중감을 키워 주어야할지?.. 정답은 있지만 현실은 이를 어렵게 한다...

8월 6일

우리 예은이 태어난 지 98일 되는 날!! 뒤집기 성공!! 기특하다. 한번 성공하니 이제 수시로 뒤집는다. 빨래하고 나왔는데 예은이가 코 박고 자고 있어서 기겁을 했다. 조심해야겠다. 박예은 파이팅!!!

8월 8일

백일되는 날! 이렇게 저렇게 백일 떡을 돌리고 수수팔떡도 먹고 조촐하게 교회에서 백일잔치를 했다. 저녁때 영복씨 친구들이 왔다. 남자들이 반지 들고 오는 모습이 꽤 귀엽다. 그러구 고맙다. 예은아! 우리 예은이가 벌써 100일이 다 되었네. 잘 자라주어서 너무나 고맙단다. 방긋방긋 웃는 너의 모습을 보면 엄마는 너무나 고맙고 기쁘단다. 엄마가 최선을 다해 보살피 줄게. 사랑한다. 엄마 딸! 순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날 밤은 꼭 힘껏 보챈다. 한번 물어대면 정신없다. 딸아! 너 절대로 안 순해...

8월 14일

백일 사진 찍으려고 예약한 날인데 예은이 아빠는 어제 새벽에 들어와 맥주 한잔하고는 2시까지 자더니 회사에 출근하겠다고. 휴- 속상하다. 예은이 커가는 모습을 같이 지켜보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회사일로 바쁘고 그렇다고 더 딸에게 관심의 비중을 많이 두지도 않는다. 냉정한 사람인가? 화나는데 화 낼 수도 짜증 낼 수도 없다. 내 딸 나 혼자 데려가서 찍어!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니다. 이건 부부가 같이 해야 될 몫이다. 그리하여 내일로 연기하고-

우리 딸은 뒤집기의 여왕이 되었다. 다리 힘도 짱짱하고.

8월 17일

사진관 도착해서 15일 날 찍은 사진구경을 했다. 우와! 우리 예은이 정말 예쁘다. 한복입고 찍고, 드레스입고 찍고, 원숭이 옷 입고 찍고, 공주님 옷 입은 예은이 넘 귀엽다. 액자에 넣은 사진을 골라야 하는데 이 사진도 예쁘고 저사진도 예쁘고 어떤 걸 골라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아니 이렇게 예뻐도 되는거야 (호!호!호! 죄송! 죄송!)



예은아네 가족사진

혜영이와 용철이를 기리는 유진 어린이집

류 지 민 · 우리네기획팀원

온 세상이 하얗게 눈 덮인 화요일, 부천에 있는 유진 어린이집을 방문 하였다.
성주산 바로 밑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신학기 준비로 조금은 분주한 듯 했다. 한국보육교사회를 소개하자 김영지 원장님은 교사회에서 열었던 교육에 몇 번 참여하셨다면 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이곳 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과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서 원장님은 그 얘기를 시작하셨다.

1990년 3월 9일 혜영(5살), 용철(4살)이 남매의 사고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시골에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 이웃도 없고, 아이들의 친구들도 없었으므로 아이들을 방안에 두고 밖에서 자물쇠를 잠근 채 맞벌이 부부는 일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 어린 남매는 성냥으로 장난을 치다가 그만 불이나 질식한 채 세상을 떠났다. 엄마는 과충부였고, 아빠는 유진 레미콘의 경비원이었다.

그 후 1998년에 혜영이 용철이 아빠가 다니던 회사였던, 유진 재단의 지원을 받아 유진 어린이집이 설립 되었다. 그날 우리 사회가 혜영, 용철이에게 엄마가 되어 주었어야 했던 것처럼 저소득층 아이들과 장애 아동에게 보다 나은 질적인 보육을 펼쳐 나아가



유진어린이집

고자 했다. 처음엔 50여명의 작은 어린이집에서 지금은 100명이 넘는 정원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하는 큰 시설로 자리 잡았다.

교사들에게도 어린이집의 설립동기를 말해주면서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되새기게 하고, 처음 신입생 O.T 때엔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부모님들에게 혜영, 용철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여준다고 한다.

유진 어린이집은 자연친화적인 생태교육과 발도르프 교육을 함께 한다.

교사들이 모여 인형을 비롯한 자연물 놀잇감을 만들고 아이들은 이를 즐겁게 갖고 논다. 실제 교실을 들어가 보니 나무로 만든 장난감들과 형조 인형들로 교구들이 가득 차 있었다.

어린이집 뒤에는 성주산이 있는데 매일 아이들하고 산책을 한다. 이웃에 있는 산 어린이집(공동육아시설) 아이들과도 만나서 신나게 놀기도 한단다. 이곳 산책로 역시 유진 재단에서 아이들을 위해 마련해 준 것이다.

장애아 전담시설이다보니 장애아 부모 모임이 활성화 되어 있다. 아버지 모임과 어머니 모임으로 나뉘어져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누고 있다고 한다.

원을 운영하면서 유진재단의 지원으로 재정활동의 큰 어려움을 없지만, 다른 어린이집을 볼 때 교사들의 처우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는 원장님과 담소를 끝으로 하고 어린이집을 나섰다.

돌아오는 길,

하얀 눈은 포근한 날씨 속에 다 녹아버렸고, 어린 남매의 넋을 되새기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보육이 무엇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했다.



김영지 원장님

광주광역시보육조례제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안)제정을 위한 공청회-

박 화 명 · 회원

지난 2003년 4월 광주전남보육교사회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공동사업으로 발기하여 같은 해 11월 발족한 '광주광역시보육조례제정연대회의'의 두번째 공청회가 2월 2일에 있었다.

03년 12월 1차 공청회와 조례안제류, 04년 12월 토론회까지 3년에 걸친 '보육조례제정운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공청회.

연대회의에서는 공청회가 열리기 1달쯤 전에 학계와 시관계자, 시의회, 언론, 부모 등까지를 아우르는 대대적인 '토론회'를 시청 사안에서 개최하여, 공개적·다각적인 시각으로 시보육조례 제정과 내용원칙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과 마무리작업으로 '조례안 공청회'를 마련하였다. 공식명칭은 '광주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였다. 그간 시민의견조사 작업과 자료연구들을 통해 준비해온 조례안을 공식 발표하고 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그날은 광주지역에 사상 유례없는 폭설이 내린 날이었고, 공청회는 준비대로 강행되었다. 시청사 회의실에 단체관계자 및 시민 150여명이 참석하였고 패널로는 윤난실 시의원과 전 부산보육조례운동본부 김명선 집행위원장이 참석하여 연대회의 측에서 발표하는 보육조례안에 대해 지지와 보충 및 문제점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당일 참석자들은 준비된 조례안 중 '아동권익보장'과 '보육정책위원회' 조항에 대한 지지와 보완을 이야기하였고, '방과후 보육' 문제와 '위원회구성' 등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 무엇보다도 다수의 의견은 조례의 각 조항들이 보다 구체적인 표현과 현실성 있는 정책들을 담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발표된 조례안은 시의원2인의 공동발의로 3월2일 상정되어, 3월 9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의원발의가 갖는 한계 상 양보하고 후퇴된 내용들도 있어 아쉽기 그지없지만, 상정된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 원안 의결되어 그간의 애쓴 성과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원고가 쓰여진 이후에 광주광역시 보육조례제가 제정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보육조례제정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003년 여성단체연합과 광주전남보육교사회가 공동사업으로 발기하여 같은 해11월 광주시내 약2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족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 1월 이상택시원의원의 보육조례안을 최초 발의하였으나,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을 이유로 계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1년간 연대회의에서는 시민여론수렴작업과 바람직한 보육조례안을 만들어내고 여론화하는 운동 펼쳤고, 2005년 3월 2일 윤난실(민노당비례), 이상택(민주당비례) 두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임시회에 상정되어, 3월 8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광주광역시 보육조례의 주요내용은 보육의 공공성과 영유아인권실현, 영유아 안전 및 건강 영양관련권익보장,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공개모집,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설치, 비용보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보육조례제정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중앙활동 | 사무실 이전

서대문 시대를 시작하며...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에서 10년을 정리하고 한국보육교사회가 지난 2005년2월25일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평화의집 입주단체를 중심으로 후원 사업을 통해 여성평화의 집을 새롭게 건립하는 동안 서대문 사무실에서 힘찬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 방문 회원들의 덕담 한마디-

장충동 그 가까운 곳을 떠나 서대문에 새로이 자리를 잡은 사무실에 처음 들어서 보니... 서먹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그대로라... 넓은 사무실을 위안 삼으며...새롭게 정을 쌓아 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교류와 만남이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이수미

대문 안으로 들어서 넓은 길이 맘에 들고, 낡은 건물이라 정겹고, 어디 사는지 모르는 고양이와 강아지가 반겨주니 좋네요. 여전히 사방이 폭 차 있지만 넓어서 좋아요. -김진숙

밖을 때 왔으면 달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두울 때 보니 컴컴하기만 하고 찾아오기 힘들었어요. 벽걸거리는 계단과 통로를 밟으면서 올라오니 정겹기도 하고 어두울 때 걸으면 섬찟할 듯... —이보경

사무실이 넓어져서 좋아요. 건물은 낡설지만 낮에는 예쁘겠네요.

사무처 식구들 고생하셨어요. —김호성

옛날에 비해 훨씬 인간적인 사무실. 창문가에 쪼로록 화분들이 있으면 너무 예쁜 거 같아요. 담에는 작은 화분 하나 준비해야겠네요.

올 때마다 물도 줘야지. —이경녀

너무는 아니지만 넓어 졌어요~ 님 좋아요. 걸을 때마다 쿵쿵! 울리기도 해요. 2호선이라 좋아요~ —한송이

사무실에 왔더니 와! 멋지다! 빈손으로 와서 미안하네...

고생아닌 고생스러운 걸음으로 왔는데 이게 웬일이야? 님 멋진 풍경이 보였어요..

남영동에서 여기까지 이제 내 건물사서 회의도 하고 하면 좋겠어요. 냉·난방도 안된 다하니 100년만의 더위인 올해 걱정되네요. 부자 되세요.

우와...

사무실이 예쁘네요. 커다란 창문도~ 들어오기 전 밖은 약간 무서웠는데...

아자! 파이팅!

오랜만에 와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학교 때 와서 좋았는데... 경치도 좋고 마당도 있고 근데 냉·난방이 되질 않아서 고생이 심하겠네요. 고생되더라도 좋은 경치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아자 아자!

대문에 들어서니 나뭇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며 지저귀는 새들이 참 인상적이네요.

봄이 오면 넝쿨이 님 예쁠 것 같아요. 사연 많은 이사를 축하드리며...

장소는 좋은데 너무 덥다 춥다 하겠군. 주인들이 없어 약간은 외롭네. 이런 운치 있는 곳 한번 켜고 싶었던 곳이야.

어려운 이사했다고 들었는데 빨리 정리가 되었네요. 사무실이 아늑해서 자주 오고 싶을 것 같아요. 난방이 안되어서 춥다고 해서 안스러워요. 날이 따뜻하면 지낼만한 것 같아요. 들어올 때 새소리가 반겨주어서 좋았어요. 나무 많고 공기 맑은 곳에서 건강하세요!

서대문 유서 깊은 문화계 건물로 이사를 왔네요. 마당도 있고, 물론 잔디밭도 있고, 햇살도 좋네요. 일꾼들이 조금은 나은 환경에서 일하게 되어 마음은 좋은데... 야근 시 어둡고 한적함에 두려움에 떨게 보이는군요. 이사도 했고, 새로운 마음으로 -어차피 새롭게 시작은 했지만- 힘 있게 살아가길 바라며, 꽃피는 춘삼월에 마당에서 가든파티 한번 합시다. —박정애

이제 번창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완전한 공보육의 실현을 위한 힘찬 활동을 기대하며 이전을 무지하게 축하합니다. —최선화

나무와 꽃이 가득한 보육교사회 새 보금자리 안와보시면 후회하실 것입니다.

보육교사회 역사상 첫 호사스러운 사무실이거든요. —김영선

나의 딸아!

진짜 주인공 되어 세상 속으로 날아가렴!

박 화 명 · 회원

떨어지는 낙엽이 더욱 쓸쓸함을 주던 지난 해 가을 어느 날,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호적을 정리하려고 동네 동사무소를 찾았다가 생전 처음 호적이란 걸 봤다. 옛날 낯날 돌아가신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성함도 적혀 있었고 작은아버지와 우리 오형제 이름까지 한꺼번에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보니 새삼 반갑고 새로웠다. 그런데, 돌아가신 조부모님 성함과 내 이름 앞에 동일하게 박혀 있는 '제적'이라는 용어 앞에서 드는 그 당혹감과 묘한 소외감이란...

여자의 신분으로 결혼을 했다는 이유가 이 집안에서의 나의 위치를 사망자와 동일한 호적 말소자 신분으로 만들었구나하는 생각에 참으로 씁쓸했다.

그 가을날의 생생한 느낌과 함께 잊지 못하는 또 하나의 기억이 있다.

바로 2005년 3월 2일! 드디어, 반세기만에 성차별과 반인권의 상징인 호주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날이기에... 지난 1957년 민법 제정 시부터, 그리고 그 이후 가족법 개정 때마다 끊임없이 여성계와 수많은 국민들이 염원해온 호주제 폐지가 드디어 이루어진 역사적 순간이었다.

17대국회는 호주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고 그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부성 강제주의로 인한 여러 폐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 호주제가 가지고 있던 부성강제나 부부평등권 침해, 아동 인권침해, 가부장적가족제 등의 여러 문제점 -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가 결정되는 것(민법 제984조), 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민법 제781조), 남편은 처의 동의 없이 혼인 외 자녀 입적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민법 제784조),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민법 제781조) 등-들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제도가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벌써부터 각종 언론과 인터넷에서는 '호주제 폐지 환영, 반대 논란'도 뜨겁고 '호주제 폐지에 앞장선 남성..' 운운하며 경희대 김주수 교수와 그 아들 김상용교수, 탤런트 권해효 씨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 마치 그들이 호주제 폐지의 주인공인양...

각 여성단체들에서는 환영 성명과 논평 발표에 여념이 없고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두고 걱정들을 하고 난리인 모양이다.

하지만, 뭇보다도 난 나의 딸과 함께 우리의 가족부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에도 마냥 기쁘다. 그야말로 7살박이 나의 딸이, 호주제 폐지의 주인공인 듯하고 나의 딸을 위해 호주제 폐지가 결정된 것 같기만 하다. 들어켜보면 난 호주제폐지를 위해 서명 한번 하고 몇 번의 행사에 참여하여 박수친 것 밖에는 없는데도, 나의 딸, 우리의 아들을 위한 좋은 세상 만들기에 내가 마치 그럴듯한 역할을 한 것만 같아 어깨가 으쓱하다.

맘껏 좋아할 일이다. 더 열심히 생활할 일이다.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정말로 이세상의 주인공이 된다는데...

21세기의 우리네 아이들아! 불평등의 족쇄를 벗고, 성의 굴레 던져버리고, 편견의 시각 떨치고, 진짜 주인공 되어 세상 속으로 훨~훨 날아올라 보렴. 푸른 창공 속으로.

호주제 NO! 평등가족 YES!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 세상의 보육노동자

-창원J어린이집 시설비리 사건 4개월째-

김 지 희 · 전국보육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지난 2004년 11월, 창원의 한 여성단체에 한 어린이집 학부모가 찾아왔다. 어린이집에서 자행된 정원초과, 아동학대, 교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창원J어린이집 시설비리 사건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우리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의 근무시간만큼 보육 받는다. 먹고, 자고, 씻고, 놀고, 우리가 '생활'이라 부르는 이 모든 활동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온종일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없어서 보낸 곳이니 만큼 '잘' 먹고 있는지, '잘' 씻고 있는지 아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비리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날 때는 반드시 내부 고발자의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다. 시설장의 말 한마디면 오갈 때 없이 해고당하는 신세가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초과로 인해 아이들이 지낼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급간식비 몇 푼 아끼려는 시설장의 욕심에 초코파이 반죽으로 연명하는 아이들을 보고 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선생님들은 양심선언을 하게 된다.

이번 창원J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그러하였다. 37명 정원에 2배가 넘는 80명의 아이들을 보육하였고, 시설장과 교사를 포함한 85명이 43인분의 급식량으로 끼니를 해결하였으며, 간식으로 썩은 바나나를 먹여 토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또한 차량 운행할 때 난폭운전으로 코피 터진 아이와 발목 부상당한 선생님, 사람 많은 대형할인마트에서 시설장이 선생님에게 눈물 흘릴 만큼 큰소리치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당당히 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아이들의 학대받는 모습을 견딜 수 없어, 더 이상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생활할 수 없어, 민간시설이라서 문 닫으면 자신들의 생존권도 지킬 수 없는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모 공개 수업이 있던 어느 날 선생님들은 양심선언을 해버렸다.

J어린이집사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기자회견도 해보았다. 언론매체마다 인터뷰도 해보고, 행정기관 면담도 해보았다. 그리고 결국 J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원해서 모두 빠져 자진 폐쇄가 되었다.

그 와중엔 시설장에게 욕 섞인 전화도 여러 차례 받고, 심지어 원장의 사주를 받은 타 시설장설 시설장에게도 협박전화를 받았다. '왜 빨리 말하지 않았냐?'는 원망 섞인 부모들의 말도 들어야 했다.

사건이 터진지 2개월이 흘러 경찰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었다. 두 번 다시보고 싶지 않은 어린이집의 문턱도 오랜만이었지만, 녹이 슬어 엉망이었던 에어컨과 밥솥은 깔끔하게 수선되어 증거 인멸되어져 있었다. 아이가 원장에게 폭행당하거나 썩은 바나나를 먹는 장면도 재현되어졌지만 이미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아이가 받은 심리적 상처를 증명해낼 길은 요원했다.

그래도 선생님들은 굴하지 않고 이겨내었다. 그저 앞으로는 J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이 생겨나길 바라지 않는 마음뿐이었을 것이다.

2005년 1월에 J어린이집사태해결과 공보육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후 '시민연대')가 만들어지고, 일개 시설 비리 문제는 공보육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확장되어갔다. 그 결과 몇 가지 작은 성과를 이뤄냈다. 창원시는 시립어린이집 건립과 보육위원회 구성원에 보육노동자를 포함시키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향후 시민연대는 창원지역 내 시설 비리나 학대 등의 문제로 인해 폐원된 사례들과 창원시보육노동권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공보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요구안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국가 지원 보육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창원시 보육조례제정 운동에도 이바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시설장은 '공개 사과하라'는 작은 요망조차 들어주지 않은 채, 오히려 선생님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 부모 공개 수업 때 시설 비리에 대해 말하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명예훼손에 걸렸고, 결국했다고 업무방해에 걸렸다. 현재 선생님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고소 건은 민주노총 창원 금속 법률원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있고, 황당한 상황을 맞이한 선생님들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경찰에 신고 된 원장은 정원 초과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가 예상된다.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 세상에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선생님들. 이러한 한발 더딘 용기들이 모여 당연한 듯 자행되는 시설 비리도,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모독도, 말도 안 되는 고소도 없어지는 그 날이 시작된다.



알림

- :: 2월 25일로 예정되었던 회비 출금이 업체사정으로 인해 3월4일에 출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 3월 회비는 25일 정상 출금될 예정입니다.

보육계 동향

1.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영유아보육법 제22조(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이 교부하는 보육교사자격증의 발급업무가 4월부터 실시된다.

2005. 1.31일 실시한 보육교사자격증 발급 위탁운영기관 선정심사결과, 한국여성개발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여성개발원 자격증 발급사무국이 오는 15일 이후부터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자격증 발급업무는 2005년 졸업자와 현직종사자를 우선 발급대상으로 차차 넓혀갈 예정이다.

자격증 신청시 첨부서류

-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98년3월이후 졸업자)
-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또는 수료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보수교육 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 사진(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 출처: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2. 보육정책 부모 모니터링 단

여성부는 지난 3월 7일부터 12일까지, 보육정책 부모 모니터링 단 10명을 모집하였다. 부모 모니터링 단은 향후 2년간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정책 모니터링 등을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 여성부 보육기획과 (☎02-3703-2514, Fax 02-3703-2610)



소식과 소식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의견서를 여성부에 제출

지난 1월20일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의견서를 여성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의견서의 내용은 한국보육교사회에서 이제까지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었던 개정의견과 2004 한국보육교사회에서 진행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방안연구]결과에 따른 보육사업안내 개정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활동보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포럼 참석

1월25일 육아포럼에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관리업무 위탁심사 참석

1월31일 보육교사 자격증 관리업무 위탁심사에 박은아 운영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네기획팀 모임

2월2일 우리네아이들 기획팀 1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연석회의 참가

2월24일 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연석회의에 이강선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사무실 이전

2월25일 사무실이 장충동에서 서대문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임정수회원이 자원봉사로 수고하였습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2월26일 제1차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제9회 총회의 위임사항인 한국보육교사회 전망팀 구성 및 진행에 관한 논의와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여성단체연합 제1차 정기이사회 참석

2005년 2월 23일 여성단체연합 제1차 정기이사회에 서은희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정기이사회에서는 여성단체연합의 2, 3월 사업계획 심의와 내규개정등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 보육시설의 투명성 확보방안 연구의 자문회의 참석

2월23일 보육시설의 투명성 확보방안 연구의 자문회의에 서은희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제21회 한국여성대회 참가

지난 3월6일 이화여대강당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여성대회에 한국보육교사회는 준비단체로 참여하였습니다.

☞ 광주광역시 보육조례제정!

광주전남보육교사회가 함께 한 '광주광역시 보육조례제정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서 진행된 광주광역시 보육조례가 2005년 3월 2일 윤난실(민노당비례), 이상택(민주당비례) 두 의원 공동발의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임시회에 상정되어, 3월 8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 3월10일 여성부 중앙보육위원회 본 회의 서은희 대표를 추천하였습니다.

☞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5년 1월18일부터 3월10일까지 입금분입니다.)

〈후원회비〉

안경자 6천원	신아영 6천원	구미진 6천원	박영미 6천원	이미옥 1만원
김숙자 1만원	김현빈 4만원	김세희 6천원	김동현 1만원	김숙희 1만원
김심환 1만원	김은주 1만원	김진명 1만원	신아령 1만원	신주영 1만원



이미정 1만원	박영미 12천원	김경인 2만원	김명미 2만원	김영옥 2만원
김영화 2만원	김정윤 2만원	박선하 2만원	백선희 2만원	송순우 2만원
신현미 2만원	양은희 2만원	오영숙 2만원	이미화 2만원	이준구 2만원
이지수 2만원	임태형 2만원	장성일 2만원	장혜자 2만원	전정옥 2만원
정영화 2만원	조선경 2만원	주로미 2만원	최영신 2만원	하운하 2만원
한상원 2만원	홍현희 2만원	김종원 3만원	권성춘 4만원	김민정 4만원
김수애 4만원	남명자 4만원	안명희 4만원	오경숙 4만원	유희정 4만원
이옥 4만원	이현경 4만원	이희경 4만원	정승희 4만원	권혜진 6만원
오선영 6만원	박영수 10만원	조인숙 10만원	최순옥 10만원	

세쌍둥이어린이집 20만원

〈자료회비〉

대동대학교, 건양대학교,

〈기타〉

평생회비 전경숙 10만원.



스님,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전통사에서 토끼를 만 아이들...

우리네아이들의 변신은 무죄?

새롭게 바뀐 기획의 우리네아이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마구 보내주세요.

새로운 연재가 몇 가지 시작됩니다.

[좋은 그림책 소개]에 이지영님께서 새롭게 우리네아이들과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호까지 그림책원고를 써주 시던 부산지부 그림책소모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는 윤선영 교수님께서 연재해주십니다. 보 육 교사들이 갖고 있는 보육활동의 고민을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되짚어보는 자리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는 이제까지 선후배들의 릴레이 만남의 자리 였습니다. 이번호부터는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녀보려고 합니다. 류지민 회원과 아기가 함께 취재해서 연재합니다.

[세상읽기]의 필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경아님과 박화명회원이 수고해 주십니다. 이제까지 수고해주신 정책팀 원들께 감사들 드립니다.

[보육교사일기]의 필진으로 서주희회원과 이순회원이 활동하십니 다. 이 외에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특별기고]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육의 이슈에 대한 다양한 개 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실고자 합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하는 것만큼 가슴 설레는 일은 없지요. 덤석 한다 해놓고 제대로 못하는 것만큼 후회스런 일도 없지요. 나한테 주어진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따뜻한 봄 되면 좀 더 열 심히 일 해볼랍니다. 끝!

한국보육교사회 교사선언문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활동
- ◎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 보육관련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 보육관련국제교류활동
- ◎ 보육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 격월간지 '우리네 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본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제공
- ◎ 어린이 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 보육종사자 교육
- ◎ 보육관련 연구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본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월간 좋은엄마]에서 한국보육교사회를 후원합니다.

아이와 함께 자라는 엄마들의 이야기 '월간 좋은엄마'!
국내 유일의 '여성 육아 교양지'로 자리잡은 '월간 좋은엄마'는
엄마의 고민을 듣고 정보와 대안을 제시하는 잡지,
아이를 키우며 웃고 우는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잡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엄마들의 노력을 담은 잡지,
무엇보다 '엄마라서 행복한 이유'를 발견해내는 잡지입니다.
'월간 좋은엄마'는 이미 10만의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엄마

아이와 함께 자라는
엄마들 세상

한국보육교사회를 통해 [월간 좋은엄마] 정기구독을 신청해주시면 한 분당 5000원씩 한국보육교사회를 후원합니다. 구독신청은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1년 구독료 25,000원)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www.kdta.or.kr

한국보육교사회 전화 0505-362-8568